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동남권 관문공항이 답입니다!

☺ 장애물 없이 안전한 공항

🕒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확장성 있는 공항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체육 2020 01+02 Vol. 23

www.sports.busan.kr  
2020 01+02

/ Vol.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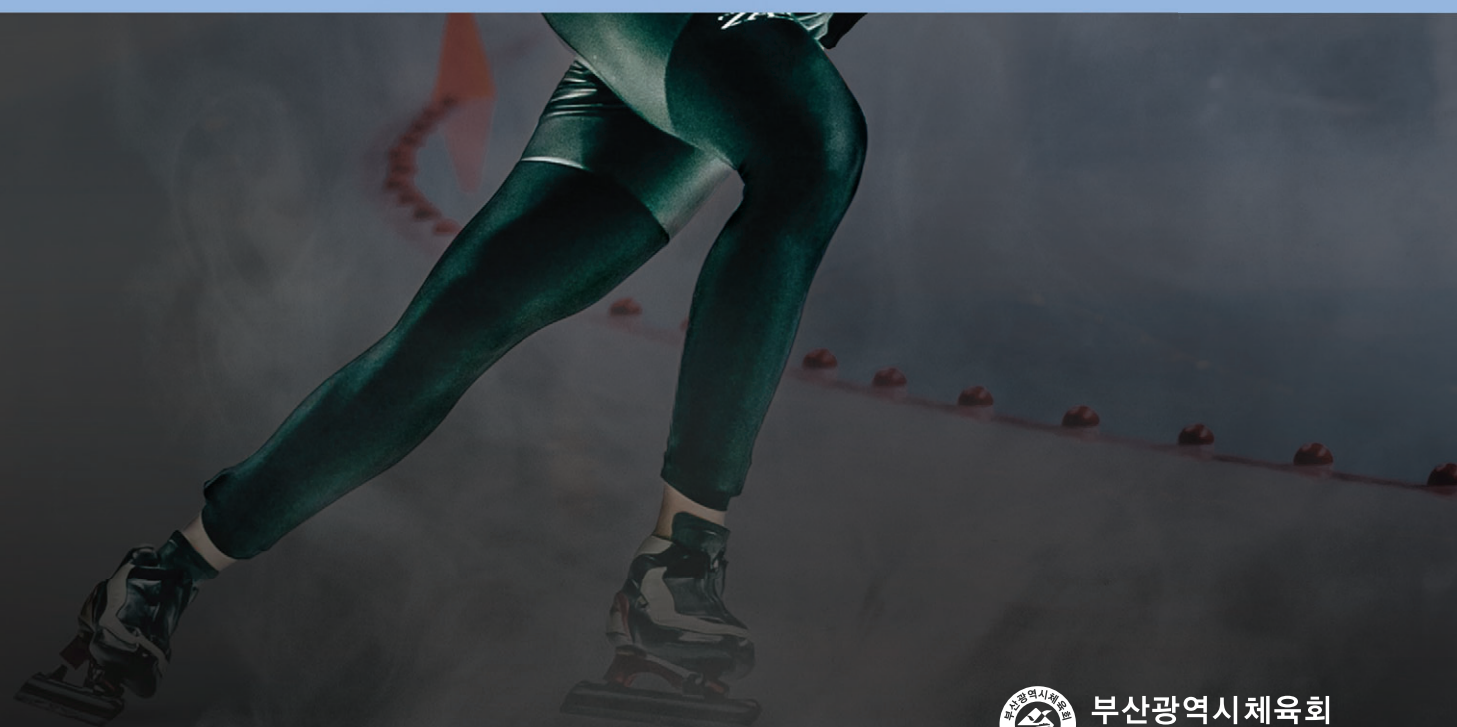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신년사

스페셜 인터뷰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이달의 스포츠  
스케이트

#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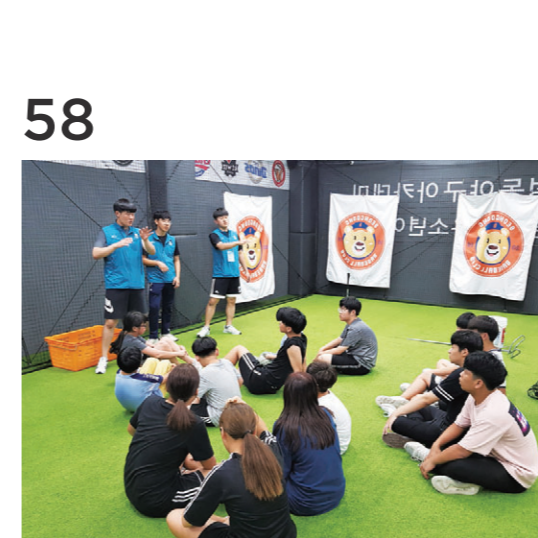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0 01+02 / Vol. 23

발행일 2020년 2월 14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장현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디자인대훈(T. 051-898-0330)



## COVER STORY

### 표지 기사



빙판 위에서 날을 스친다. 아니 춤을 춘다. 그리고 점프, 중력에서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본다. 빙판과 하나가 돼 자유자재 춤을 추기까지 그 혹은 그녀가 흘렸을 땀과 눈물 그것은 간절 한 바람, 오랜 열망의 다른 이름!

### 사람과 사람

- 04 신년사I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06 신년사II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 07 신년사III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
- 08 신년사IV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 09 신년사V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 스페셜 인터뷰

- 10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구·군 체육회장 취임사 및 신년사

- 14 16개 구·군체육회 회장단

### 이달의 이슈

- 30 운동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 스포츠 속으로

- 32 2019 EAFF E-1 챔피언십

### 부산체육의 발자취

- 36 새천년을 향한 부산 체육의 도약

### 부산의 스포츠 소식

- 38 부산국민체육센터
- 40 북구국민체육센터
- 42 영도국민체육센터
- 45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47 구·군체육회
- 51 회원종목단체
- 52 부산공공스포츠클럽

### 스포츠 뉴스

- 54 울긋불긋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주의
- 56 스포츠 뉴스

### 이달의 스포츠

- 60 스케이팅

### 문화 속으로

- 64 책과 영화

# 부산체육 가파르게 성장하는 한 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新  
年  
受  
福

“ ‘행복한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전문체육 강화, 맞춤형 스포츠복지 서비스 확대, 학교체육의 기초기반 강화, 스포츠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추진과제를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흰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체육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산체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24년 만에 5번째로 제105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이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 시장배 슈퍼컵 종목을 7개 종목에서 8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스포츠클럽활성화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부산시민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개최로 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자년 새해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부산체육 전략을 본격적으로 설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이 건강한 ‘행복한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전문체육 강화, 맞춤형 스포츠복지 서비스 확대, 학교체육의 기초기반 강화, 스포츠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추진과제를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이 모든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민선체육회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어진 개별 사업을 단순히 관리하기보다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단법인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만들어 추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체육회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스포츠산업 콘텐츠 연구·개발, 세계대회, 국제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예산 집행에만 전전공공하는 체육회가 아닌 미래 지향적 체육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100세 시대 건강한 도시부산을 위해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보급으로 체육진흥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시 한 번 체육가족 및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지혜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 담긴 경자년(庚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체육가족 및 시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적 스포츠 도시로 향한 도약의 기틀

부산이 스포츠로 행복해지고 스포츠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고 계신 시,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를 비롯한 부산체육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부산체육은 국제적 스포츠 도시로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축구 A매치 대회,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LPGA(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여성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EAFF E-1(동아시아인컵)축구대회,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세계 2대 이종 종합격투기 대회) 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메가스포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다가오는 2020년 3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부산에서 유치함으로써 부산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선수육성과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체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화합을 통해 내·외부적 역량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시체육회 회장을 민선회장이 맡게 됩니다. 부산시는 체육회 회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새로운 체육회장이 부산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부산시체육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스포츠로 행복해지고 스포츠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포츠 선진도시 부산, 더 힘찬 도약을

부산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부산이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



2020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민선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 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새 길을 열어갈 장인화 신임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 체육 발전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돌이켜 보면,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통상·안보 갈등, 미중 무역분쟁, 주춤했던 남북 평화협력까지 지난 한 해 우리를 둘러싼 파고는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숭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 시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에 우리는 굳건하게 버티고 잘 이겨냈습니다. 부산체육계가 힘 모아 이룬 지난해 성과도 시민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아축구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부산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 제8대 시의회는 2020년을 맞아 '부산시민'을 믿고 '부산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생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부산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부산이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체육회도 올 한 해 새로운 도약,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시길 것을 기대하며 부산혁신의 큰 수레바퀴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시체육회가 7천 엘리트 체육인과 20만 생활체육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의 구심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부푼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부산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0년 한 해, 스포츠 선진도시 부산이 더 힘차게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과 함께 뛰는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향한 기대

새해에도 스포츠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경자년(庚子年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부산체육의 힘찬 도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첫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되신 장인화 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인화 회장님은 부산광역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오셨으며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체육회 이사장 등 중앙과 지역에서 체육 활동을 이어오며 혁혁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중앙의 체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대학 및 실업팀 창단 등, 시민과 함께 뛰는 부산광역시체육회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부산체육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스포츠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체력 향상과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 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많은 체육 활동에 참가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부산 체육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포츠 인권 향상 위해 역량 결집하는 해로

대한체육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2020년에도 온 국민이 스포츠로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전진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친애하는 부산시 체육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부산시 체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되신 장인화 회장님께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인화 회장님은 체육계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 오고 계십니다. 2003년 부산시 육상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부산체육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주셨으며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부산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중앙과 지역에서 체육 활동을 이어오시며 체육행정에 있어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 체육계에서 오래 봉사하시며 그간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장인화 회장님이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장님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융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 체육가족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근대체육 100년이자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한 세기에 빛나는 역사를 지닌 우리의 스포츠는 힘 없이 달려오며 지금의 '스포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100주년을 맞는 이 해를 새로운 스포츠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힘껏 도약해야 합니다. 스포츠의 새 시대를 위해서는 부산시 체육가족 여러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이 더불어 발전하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 여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산시 체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체육회는 부산시체육회와 함께 2020년에도 온 국민이 스포츠로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전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두루 이루시고 경자년(庚子年) 흰쥐의 상징처럼 다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첫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개막!

현실공약 + 내실경험 + 민심진심 열쇠로~

###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부산의 조선인 체육 선각자들이 일제의 탄압에 용기를 내 '부산체육회'를 창립한 건 1935년. 그로부터 85년이 흐른 2020년, 부산체육은 대대적인 변화의 파고(波高)를 맞는다. 첫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개막! 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막으면서 올해부터 민선 체육회장이 전국 지자체 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제26대(통합3대) 초대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렀다. 장인화 전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391표 가운데 307표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체육계 안팎의 풍부한 경험과 내실 있는 경영 마인드 무엇보다 부산체육 발전을 누구보다 열망하며 진심을 다한 결과였다. 막중한 책임감만큼 추동력을 더하겠다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흔들림 없는 눈빛, 신중하고 끈은 어조로 그간 품어둔 '부산체육' 얘기를 시작했다.

### 1 '우산' 같은 존재, 부산 체육인 열망의 대명사

2003년 부산육상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트 협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부산시광역시체육회 수석 부회장 등 중앙과 지역을 아우른 활동 면면이 화려하다. 장인화 회장은 오래 전부터 체육계 리더로 활약해온 터라 부산 체육인들 사이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다. 엘리트, 생활, 장애인 체육 행정을 두루 이끈 데다 부산에서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CEO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온 그에게 이번 도전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부산 시육상연맹 부회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맡게 됐죠. 워낙 장애인 체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유독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장애'라는 극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매 순간 죽을 힘을 다해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그들을 보며 뭐랄까, 제 마음에 울림이 컸어요. '아, 내가 이들에게 우산이 돼 줘야겠구나' 싶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때 한 다짐은 제 삶의 동력이었죠.”

## JANG Inhwa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치 열악한 체육 환경에 빠듯한 예산, 해가 바뀌어도 뭐 하나 나아지지 않는 부산체육의 현실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게 반복됐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이후 새로 구축된 체육시설 하나 없었으니 답답할 노릇. 그런 와중에 치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첫 민선 체육회장이 된 그에게 이전 정말 변해야 한다는 부산 체육인들의 간절한 바람, 열망의 시선이 쏠렸다.



### Profile

#### 경력

- 1993.~ 현재 통일철강(주) 회장
- 2002. 01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2004. 03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2005. 03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 2007. 09 ~ 현재 (주)화인베스탈 대표이사
- 2011. 04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 사회활동

- 2002. 03 ~ 현재 경남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2003.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3. 09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부이사장
- 2003. 11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 2005. 11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2007. 12 ~ 현재 국제교류포럼 회장
- 2011. 02 ~ 현재 부산국제컨벤션센터 수석부조직위원장
- 2012. 03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 2013. 05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트협회 회장
- 2015. 03 부산 상공회의소 상임의원
- 2017. 02 대한체육회 이사
- 2018. 09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2 선순환 효과 강조, 체육회 예산 증대 위한 조례 제정**

이번 선거에서 장 회장은 운영이 아닌 경영의 체육회, 체육회 예산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 체육 전문인 일자리 확대, 학교체육의 자율성 보장,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와 중계 시스템 구축, 체온이 느껴지는 체육회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체육회 예산 확보나 수익창출 방안은 무척 구체적이라 눈길을 끌었다. 공약은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첫날부터 탁월한 사업가로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쉼 없이 도전,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승부사적 기질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장 회장은 “체육회가 더는 운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경영다운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충실히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을 재차 강조해온 그는 ‘경영의 시대’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출발선에 섰다.

“경영 현장에서 평생 기업인으로 살아왔어요.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비전에 맞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데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집니다. 체육회의 새로운 수익창출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부산 지역 체육시설 4곳을 체육회가 운영중인데 이를 더 확대해 다른 체육시설도 체육회가 민간 위탁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을 운영이 아닌 경영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더 많은 수익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겠죠.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향상될 거고요. 또 체육회가 위탁 운영을 하면 체육인들의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겁니다.”

2020년 기준 부산시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체육회 전체 예산 중 약 78% 정도의 265억 원의 규모, 이는 부산시 전체 예산 중 약 0.2%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이를 0.5%까지 확대하는 민선 체육회 육성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장 회장, 이게 가능하려면 시와 시의회와의 협조와 양보는 필수다. 다행히 지난해 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맡으면서 시, 시의회와 잦은 소통을 이어왔고 서로 간에 신뢰를 돈독히 해온 터라 이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엔 자신감을 내비친다.

66 20년 가까이 체육단체 경영과 중앙 체육계 행정 경험이 부산 체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9



66 중앙 체육계에 부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부산의 의지를 관철하는 체육계 리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크게 기여했음에도 중앙 체육계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간 영향력이나 발언권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장 회장은 부산체육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지를 관철할 리더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부산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책임져온 만큼 시와 시의회에서도 체육 분야 예산 확대의 중요성을 공감하리라 봐요. 부산시도 다른 시에 비해 빠른 고령화가 진행중이죠. 예를 들어 체육 쪽에 지원을 1%를 하면 의료보험료가 6천억 원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병원에 5번 갈 거 2번만 간다는 거죠. 체육 분야 예산을 늘려 생활체육을 일상화하면 부산 시민이 건강해질 테고 병원 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되고 이게 바로 ‘선순환 효과’라는 거죠. 예산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제겐 오랜 체육 단체 경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잘 짜인 체육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체육단체 경영과 중앙 체육계 행정 경험이 부산 체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죠. 중앙 체육계에 부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부산의 의지를 관철하는 체육계 리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올림픽대회나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죠. ‘알찬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 스포츠 산업 혹은 관광상품과 연계지를 생각합니다. 또 생활체육인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중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생활체육의 대중화, 일상화 위한 인프라 확충**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첫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레슬링 양정모 선수, 1984년 LA올림픽대회에서 ‘한판의 사나이’로 불리며 유도 금메달을 따낸 하형주 선수,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단식과 복식에서 금메달을 선물한 유남규와 현정화 선수,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김문수 선수 등 모두 부산 출신이다.

이뿐만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프로농구 부산 KT 소닉붐 등 프로 스포츠가 발전한 곳도 부산이다. 게다가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꼽히는 부산,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 중구체육회

66 최우선 목표로 열심히 회장  
직을 수행하도록 99

###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6일부로 중구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신임 중구체육회 회장 김만택입니다. 먼저 저를 중구체육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대의원님들과 이번 선거에 노고가 많으셨던 중구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중구체육회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생을 중구에서 살아오면서 중구체육회에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중구의회 의장, 중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통합된 중구체육회 부회장으로도 소임을 다해 이사님들과 함께 중구체육회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2019년도 사업들을 지켜본 결과 잦은 지도자 교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하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예산 확보와 체육사업 확장 등을 최우선 목표로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체육은 단순히 심신 단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체육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100세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 중구체육회에서 제가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다시금 중구체육회장에 선출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중구체육회 일에는 항상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가장 인정받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체육회 김만택 회장



100세 시대,  
**체육으로**  
**건강과**  
**행복 지킴이**

66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99

### 살기 좋은 행복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고 체육을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부산 서구체육회 회장을 맡게 된 김용구입니다. 민간인 체육회장의 길을 열어주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생활체육동호인, 체육회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구체육회 8대회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는 그간 서구체육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구민 체육동호인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민 체육동호인께서 부여해주신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서구체육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밑바탕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체육은 종합예술로 행정과 체육회가 긴밀히 협조해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시설 개선,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항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실버체육 활성화, 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구체육회의 멋진 단결력과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체육동호인 여러분!  
서구체육회 회장직을 맡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구체육회 김용구 회장



생활시설  
**개선과 확충**  
**실버체육의**  
**활성화!**

# 서구체육회



## 동구체육회

66 아름다운 동구체육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99

### 동구체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동구체육회를 이끌어주신 전임회장님 이하 임원님들과 선배 동료 후배 체육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더욱 분발하는 동구체육회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분들의 맘과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동구체육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4개 정회원단체, 9개 준회원단체, 4개 인정단체의 회장님 이하 임원님 회원 여러분! 늘 함께 맘 흘리며 가슴으로 하나 됨을 느껴온 우리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각 종목단체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의 의견과 건의를 잘 경청하여 체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체육시설과 공간의 부족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숙제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고 풀어가야 동구체육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유대감과 일체감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도 단결된 힘으로 해결해왔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한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체육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체육을 통해 변화와 성공을 견인해가는 아름다운 동구체육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때 부산체육을 호령하던 우리 동구가 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항개발과 원도심개발로 인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활력 동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동구체육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저는 이제 우리체육회의 미래를 선배 동료 후배 체육인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 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체육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동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 여러분과 스포츠를 통해 행복을 열어가게 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 모두 함께 손잡고 동구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구체육회 **황현선** 회장



체육을 통해 변화와  
**성공 견인,  
활력 넘치는  
동구체육회로**

66 현장을 찾아가는 발로  
뛰는 체육 행정 99

### 존경하는 영도구체육회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훈 구청장님, 영도구체육회 임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님을 모신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영도구체육회 제3대(통합)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철훈 청장님께서 민선 7기로 체육회장을 겸직하셔서 1년 반 동안 영도구생활체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영도구체육회의 임원진을 재구성하고, 16개 정회원종목단체, 8개 준회원단체 등 106개 클럽에 동호인 3,677명이 왕성하게 동호인 활동하고 있는 현시점에 체육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그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몇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호인 클럽 현장을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정회원 종목단체장, 준회원 종목단체장과 클럽 회장, 그리고 각 종목별 임원님들과 주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을 찾아가는 체육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종목별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서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체육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올해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5억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구청 뒷산, 청학동 해돋이 배수지에 족구장과 배드민턴, 테니스 코트를 조기에 조성하고, 야간 조명 시설까지 설치해서 밤에도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도구체육회 **이강** 회장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적인  
체육행정**

## 영도구체육회

# 부산진구체육회

## 66 삶을 보람차고 윤택하게 하는 체육 복지 99

###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추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제3대 부산진구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이원화되었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커다란 변혁기를 겪으면서 현재의 부산진구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진구체육회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부산진구민을 하나로 엮는 화합의 원동력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체육회는 이번에 또다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화를 겪는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간 막강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해 왔던 체육회장을 체육과 정치의 분리라는 명분 아래 민간인이 맡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많은 체육인들의 사랑으로 이번 민선회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선을 축하해 주시지만, 저는 당선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평소 체육은 단순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라, 삶을 보람차고 윤택하게 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빈곤, 건강, 여가선용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여가선용과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의료비 지출의 감소로 빈곤퇴치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며,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를 설득하는 등 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시설확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각오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부산진구체육회 김호상 회장

스포츠 활성화로  
**최선의 복지정책 구현**



# 66 동래구체육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99

### 존경하는 내빈과 체육가족 여러분! 제8대(사)동래구체육회장으로 취임하는 장준용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 체육인들 모두가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기운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 체육인 여러분! 지난 2016년부터 우리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진 통합체육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체육의 의미는 모두가 운동하면서 기량과 건강을 키우는 가운데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5대 동래구생활체육회장에 이어, 통합된 제8대 동래구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통합체육과, 동래구 체육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합니다. 먼저, 종목회원 1만 시대를 넘어 3만 시대를 만들고자합니다. 물론 이 목표는 제가 꿈꾸는 목표에 한참 모자라지만 우리 동래의 27만 구민 모두가 운동하는 날까지 저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미등록 종목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인공암벽이 있는 산악과 야구, 골프와 같은 종목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좋은 운동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24개 회원종목에 대해 동래구체육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종목과 클럽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방과 후와 주말에 운동하는 학생들의 스포츠클럽을 양성하여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동래의 자랑인 동래중·동래고의 축구와 테니스, 학산여고의 골프를 비롯하여 다른 종목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꿈나무 발전에 기회가 될 체육회장배 클럽대항전을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의 만남과 교리의 장이 될 소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종목과 클럽의 벽을 허물고, 동래구 체육 가족에 친목을 다지는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육 현장을 돌아보면서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운동하기를 원하는 구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동래구 체육을 한차원 더 높이고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동래구 체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훌륭한 체육인들과 늘 소통하며 보다 화합하고 활기차며, 더욱 발전된 동래구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지도·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체육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체육회 장준용 회장

# 동래구체육회

종목회원 3만 시대,  
**종목과 클럽 간의 화합 도모**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서비스 만족도  
UP!**

## 66 새로운 출발, 더 강하게 뭉치는 힘찬 활동 99

### 사랑하는 체육인 및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쥐의 해’ 경자년은 “지혜롭고 뛰어난 생존력의 우두머리” 그리고 “기  
가 세고, 힘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풍요, 지혜의 상징인 경  
자년의 해를 맞아 지난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진화를 위해 물심양  
면으로 애쓰시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하는 밝고 건강한 세상입니다.  
2020년 올해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첫 민간회장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름  
답게 조화를 이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새로운 출발” 이  
라는 주제로 지금의 초심이 흩어짐 없이 갈수록 더 강하게 뭉쳐지기를 희  
망하며 힘찬 활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미래의 대한  
민국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인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소통과 화합으  
로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하면 앞날에 분명 좋은 열매가 맺힐 것  
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경자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길운이 넘치고  
더 빠르고 힘차게 전진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 66 능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지원 99

### 안녕하십니까

체육회의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장이라는 가볍지 않은 책무를 맡겨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  
각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체육회의 이상적인 역할은 구민 모  
두가 체육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즐기며 그 속에서 행  
복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생활체육은 모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이 기본 권리를 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이라 믿고 있습니다.

구민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단순히 관람하고 즐기는 것에서 벗  
어나 능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 속에 체육이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할 것  
입니다. 또한 소통하는 체육회를 통해 체육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작은  
소리에라도 귀 기울이며, 바르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여 구민 행복  
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제 모든 열정과 역량을 다해 회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  
히 완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활체육을 통해 힘차  
고 밝은 행복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체육회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체육회 오태원 회장



일상적 생활체육,  
**힘차고 밝은  
행복시대  
여는 발판**



### 66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육회가 되도록 99

#### 존경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동호회원 여러분! 이번 제3대 해운대구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김상철 회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였으나 올해부터 민선 초대회장으로 당선된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는 일부 주민의 취미생활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다양한 종목을 즐기는 그야말로 생활체육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대는 해수욕장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엄두도 못 낼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고 어느 지역보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임회장인 홍순헌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체육인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애를 많이 써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급하는데 저도 구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산하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29개 종목회장 및 임원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체육회 관리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해운대구체육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육회가 되도록 부회장, 이사님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님들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술술 풀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운대구체육회 김상철 회장

해운대구체육회

### 66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99

#### 제3대 사하구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노정석입니다.

저는 지금 사하구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 사명과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통감하며 이제 회원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생활체육 회원단체 임직원, 동호인 여러분!

저는 먼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행복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행복시대는 가정의 행복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체육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므로 가족들이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뉴스포츠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은 구민행복시대를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지치고 힘든 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가족과 이웃의 끈을 이어주고, 지역과 계층의 벽을 허물어주며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기업생산성은 높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발짝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생활체육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우아동, 장애, 다문화가족 등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이웃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하나가 되고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하구체육회 노정석 회장

사하구체육회

생활체육으로  
하나가 되다!  
구·민·  
행·복·시·대로



## 금정구체육회

66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배려하는 상호존중의  
체육문화 99

### 사랑하고 존경하는 체육 가족과 구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금정구체육회 제3대 회장으로 당선된 장성수입니다. 민간체육회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에 금정구체육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슴 벅찬 영광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막중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체육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체육인의 목소리를 모두 모아 신뢰받고 사랑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체육 가족 여러분!

생활체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스포츠의 대중화가 되어 사회생활과 활동, 생활양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신뢰받고 사랑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의 체육회 일원으로 쌓은 경험과 다양한 체육 노하우,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모두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정구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배려하는 상호존중의 체육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들이 체육 발전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정구체육의 미래를 위해 닳을 올린 저희 금정구체육회가 힘차게 출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자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정구체육회 장성수 회장



새로운 변화  
**흐름 발맞춰  
사랑받는  
체육회로**

66 활기찬 스포츠 문화  
정착, 선진 체육회로 99

### 존경하는 강서구 체육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장 김재업입니다.

저는 민선 초대 강서구체육회장으로서 강서스포츠의 초석을 쌓아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 잘하는 회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회장, 체육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여론에 귀 기울이는 회장이 되겠으며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활기찬 스포츠 문화 정착으로 강서구가 부산에서 으뜸가는 선진 체육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말씀드렸던 강서구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무국의 회계 투명화로 각 종목협회의 열악한 예산을 지원하며 우수 지도자 선생님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체육 동호인 활성화와 주민 모두가 생활밀착형 체육을 통해 100세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강서구체육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선·후배 체육동호인 여러분들이 쌓아온 체육회의 기반을 등에 업고 16개 구·군체육회의 모범이 되어 역동적으로 비상하는 체육회를 이끌어 체육인의 자부심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체육 동호인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 나아가 부산과 강서구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서구의 체육 미래를 위해 저희 강서구체육회가 힘차게 출항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배려와 존중이 있는 활기찬 생활체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체육회 김재업 회장



체육 동호인 활성화,  
**생활밀착형  
체육  
100시대 영위**

# 연제구체육회

66 생활체육대회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맘껏 즐기도록 99

## 존경하는 연제구 체육인 여러분!

연제구 체육회 제3대 회장이자 민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서보석입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주시고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종목별 회장님 및 대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제구 체육회는 지난 2016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통합 이래 회장이신 구청장님 및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종목별 협회와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서 노력해왔습니다. 2016년 연제구 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구청장기 대회 개최 및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민체육대회 등 시 단위 대회 및 전국 대회에 각 종목들이 적극 참가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초대 회장으로서 연제구 체육회가 이사회 및 종목별 협회와 여러 체육 동호인들을 대변하고 합심할 수 있는 진정한 민간 체육단체로 만들어 기존 종목 단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규 종목 단체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대회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맘껏 즐길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발전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제구와 연제구체육회가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종목 단체 및 동호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지지해주신 연제구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 초대 회장으로서 부담도 많이 있지만, 연제구 체육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제구체육회 서보석 회장



종목 활성화, 신규종목 발굴  
**더 풍성한 생활체육대회 마련**

66 생활체육을 편안히 즐기도록 각종 체육시설 이용방안 적극 강구 99

## 반갑습니다! 수영구체육회 3대 회장으로 선출 된 황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사님, 종목별 회장님, 동호인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체육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우리고장 수영의 모든 체육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래 동안 체육회에서 활동하면서 "삶의 행복은 건강이 최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초대 민간 회장으로서 우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 할 수 있도록 체육인이 화합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상시 마련하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협조하여 체육 동호인대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 이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것 입니다.

이제, 막중한 임기를 시작하면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평생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듯이,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 오래 동안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체육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모두 몸 튼튼 마음 튼튼 행복체력 넘치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구체육회 황대성 회장



몸 튼튼 마음 튼튼  
**수영구민 행복체력 책임!**

# 수영구체육회

# 사상구체육회

66 체육인들의 우애 증진과  
활기찬 체육회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 99

반갑습니다!  
사상구체육회 회장 강진태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활기차게 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3대 사상구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오직 사상구체육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대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님들과 종목별 협회장님, 클럽회장님, 체육동호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최근 사상구체육회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격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런 노력을 통하여 부산 시민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우승,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종합우승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학교운동부가 있는 12개의 학교에 육성지원금 전달을 2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회를 잘 이끌어주신 전임 회장님들의 리더십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의 스포츠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관전 문화가 주류였다면 현재는 생활 체육을 통해 직접 참가하고 즐기는 스포츠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호에 불과했던 1인 1스포츠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체육회 또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상구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인들의 우애 증진과 활기찬 체육회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회장직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체육회 회원님들 누구와도 터놓고 소통하고, 이사님, 종목 협회장님들과 의논하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올해 경자년은 12간지 중 첫째인 흰쥐의 해로서, 예로부터 흰쥐의 해는 활기차고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속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체육회 회원들과 모든 분들이 힘찬 흰쥐의 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 올 한해 건승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



체육인들 우애 증진  
**활기찬  
체육회  
조직문화 조성**

66 ‘원칙과 비전’을 갖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 99

체육가족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각자 희망하시는 꿈과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예측은 낙관보다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 크게 얘기하곤 했으며, 어김없이 올해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원칙과 비전’을 갖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원칙과 비전’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선장이 방향기를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올해인 2020년은 대한민국 근대체육 100년이자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의 스포츠는 쉼 없이 달려왔으며 100주년을 맞는 이 해는 새로운 스포츠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힘껏 도약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체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지금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기장군체육회 김걸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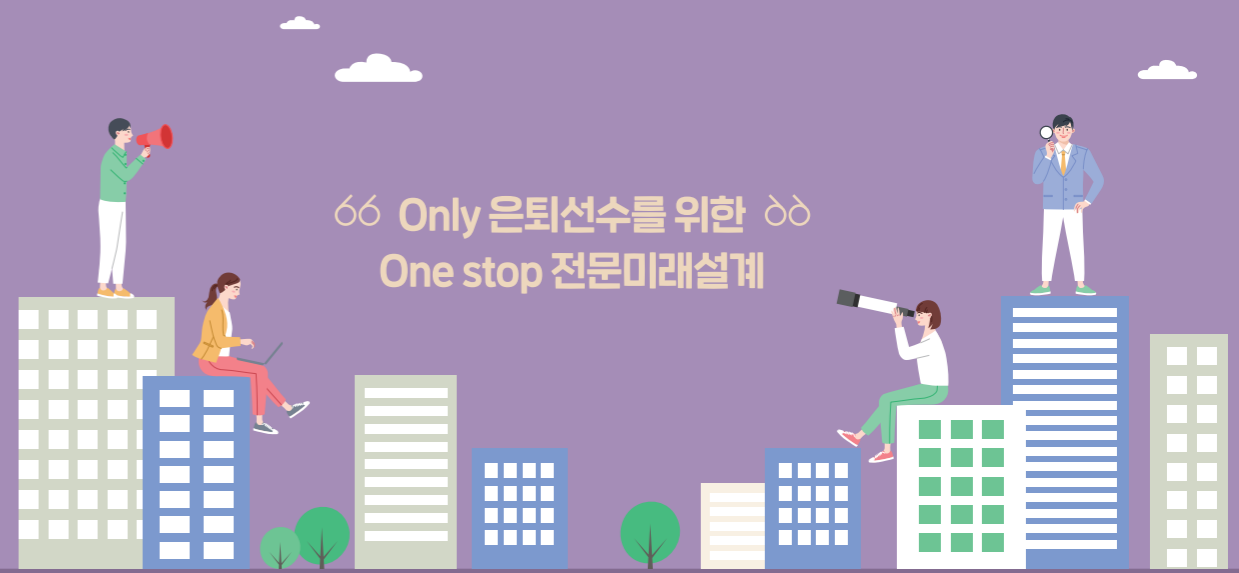
흔들림 없는 원칙과 비전,  
**스포츠  
백년대계  
원년 다시 시작!**

기장군체육회

# 운동(은퇴)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은퇴선수가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체육회는 2013년부터 운동(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권역별 진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원스톱 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가 서울에만 위치해 지방 거주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 5개 권역별(경상/부산, 수도권/서울, 경기/수원, 충청/대전, 전라/광주) 센터 개소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선수도 편하게 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는 은퇴선수 및 현역 운동선수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은퇴선수는 취업·경력 관련 상담 또는 진로지원 서비스, 잡(JOB) 매칭 서비스, 멘토링,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역 운동선수도 센터 방문 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지원 서비스는 오랜 시간 운동에 전념해 온 운동(은퇴)선수들이 새로운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 기술을 향상해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춘 1:1 진로·취업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취업 성공 선배 멘토링, 취업 교육, 창업 교육,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준비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진로지원 서비스

운동선수들의 진로와 경력개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 교육, 멘토링, 진로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상담, 교육·취업지원 연계)

- 1. 지원대상** 운동(은퇴)선수(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3.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elfare.sports.or.kr)
- 4. 지원내용** 1:1 진로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교육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스포츠 분야 진로 교육(자격증 대비반 등), 각 분야 현직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별 기초역량 교육 지원, 기업분석 및 채용정보 제공 등
- 5. 문의** ☎ 02-419-1114



## 잡(JOB)매칭 서비스

운동선수에게 취업희망 분야의 채용정보를 자동 매칭해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 1. 주요내용** 채용정보 종합제공 : 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정보 통합, 운동선수에게 신청분야의 채용정보를 선별해 온라인(홈페이지, 메일)으로 정보를 제공
- 2.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 3.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이용
- 4.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62)
- 5. 서비스주소** welfare.sports.or.kr

##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은퇴선수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 1. 위치**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서울 송파구 방이동)
- 2. 문의** ☎ 02-419-1114
- 3. 서비스주소** welfare.sports.or.kr

권역별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전국 대표번호 1544-6679**

경상센터(부산), 충청센터(대전), 경기센터(수원), 전라센터(광주)

※ 지방권역센터 운영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선수시절부터 듀얼커리어(운동과 학업)와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교육

- 1. 지원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3. 접수방법** 공문접수
- 4. 교육내용** 1강 목표설정의 중요성, 2강 운동선수의 경력 전환, 3강 흥미로운 직업정보 탐색, 4강 스포츠 관련 자격정보 찾기, 5강 스포츠 분야 직업의 세계, 6강 나의 꿈, 미래설계
- 5. 강사** 대한체육회 진로교육 전문강사
- 6.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65)

## 국가대표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직 또는 진학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진로상담 지원

- 1. 지원대상** 국가대표 운동선수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3. 접수방법** 전화접수
- 4. 주요내용** 취업전문성 강화 취업기술,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 5. 문의** 진로설계 경력개발 계획, 진학 및 교육과정 선택 등 심리상담 직업흥미검사, 성격유형검사 등 ※ 대상에 따라 시간 및 내용 맞춤 지원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64)



# 뜨겁다 부산!

## 동아시아 최상의 축구 페스티벌, 2019 EAFF E-1 챔피언십

2019년 8회째를 맞은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은 2년마다 개최되는 동아시아의 축구 축제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부터 18일 까지 9일간 부산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분산 개최됐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한국 남자대표팀은 동아시아안컵 최초 3연패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한다. 2019년 11월 30일, 한국 남자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 여자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 그리고 홍명보 KFA(Korea Football Association,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이자 대회운영본부장과 박용수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사무총장이 참가한 킥오프 기자회견장은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부산을 뜨겁게 달군 박진감 넘치는 축구 축제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 EAFF E-1 챔피언십 강세, 남자대표팀 3회 우승 기대감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개최하는 5개의 지역별 연맹 대회 중 하나인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은 말 그대로 동아시아에서 선발된 4개의 국가가 조별리그 형식으로 경기를 펼쳐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다.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예선 없이 본선 경기에 참가하고 이외의 1개 국가가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경기를 치른 뒤 본선에 합류하는 형식이다. 이번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은 홍콩이 남자부에 합류했고, 대만이 여자부에 합류했다.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은 FIFA 랭킹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에 집계되는 공식 A매치 대회다. 그러나 다른 A매치와는 달리 무조건 차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12월에 시즌 중에 있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손흥민과 이강인, 일본의 미나미노와 가와시마, 중국의 우레이는 이번 대회에서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는 자국 리그, 혹은 아시아 소속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좋은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유럽 출신 선수들에게 밀려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지 못한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감독, 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대표팀은 그동안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에서 강세를 보였다. 대회가 시작된 2003년을 시작으로 2008년, 2015년, 2017년에 우승하며 통산 4회로 대회 최다 우승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두 개 대회인 2015년, 2017년에 모두 우승하며 올해에도 3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반면 여자대표팀은 지난 2005년에 한 차례만 우승했다. 특히 이번 대회의 경우 콜린 벨 신임 감독의 데뷔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콜린 벨 감독은 2020년 2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앞두고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다. 여자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콜린 벨(영국) 감독은 2016년 SC잔트(독일) 감독을 시작으로 2017-2019년 아일랜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잠시 허더스필드타운FC(잉글랜드) 수석 코치로 있다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여자대표팀 -**

**수비 안전성은 굿,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화답**

2019년 12월 10일(화)에 여자대표팀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남자대표팀 18일(수) 저녁 7시 30분 일본과 3차전 경기를 치르면서 9일간의 열전이 마무리됐다. 여자대표팀은 아쉽게 일본에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고, 남자대표팀은 일본을 1-0으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대표팀은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다. 골키퍼에는 윤영글(경기 한수원) 선수가 책임졌고, 포백 수비라인은 장슬기(마드리드 CFF(Club de Futbol Femenino, 여자축구클럽)), 심서연(인천현대제철), 홍혜지(창녕 WFC(Women's Football Club, 여자축구클럽)), 김혜리(인천현대제철) 선수가 맡았다. 중앙에는 장창(서울시청), 이영주(인천현대제철), 박예은(경주한수원) 선수가 포진했고, 전방에는 손화연(창녕 WFC(Women's Football Club, 여자축구클럽)), 여민지(수원도시공사), 최유리(그미스포츠토트) 선수가 참가했다.

경기 막바지인 후반 41분 모미키 유카의 슈팅이 패널티에러어 안에 있던 우리나라 선수 팔에 맞으며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다. 이 패널티킥 골로 1-0으로 패배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경기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여자대표팀 사령탑인 콜린 벨 감독은 “뼈저린 패배의 아픔을 통해 배워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제 여자축구는 2020년 2월 개최된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준비에 매진중이다. 콜린 벨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수비 안전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에너지 있고 강도 높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 다만 공의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자대표팀 -**

**빠른 역습과 파울 유도로 기회 만들어**

남자대표팀은 3차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전방에는 나상호(FC(Football Club, 축구클럽)도쿄)와 이정협(부산아이파크), 김민성(울산현대)이 포진했다. 중원에는 손준호(전북현대)와 황인범(밴쿠버 화이트캡스)이 자리했고, 그 뒤는 주세종(FC(Football Club, 축구클럽)서울)이 받쳤다. 포백 수비라인은 김진수(전북현대), 김영권(감바오사키), 김민재(베이징궈안), 김태환(울산현대)이 맡았다. 골문은 김승규(울산현대)가 지켰다. 경기는 치열한 응원전과 함께 긴박하게 진행됐다. 한국은 세트플레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골대 불운을 맛봐야 했다. 전반 9분 주세종의 코너킥에 이은 김민재의 헤더슛이 크로스바를 맞았고, 전반 25분에는 주세종의 코너킥에 이은 김영권의 헤더슛이 오른쪽 골대를 맞았다. 선제골은 필드 골로 완성됐다. 전반 28분 왼쪽에는 김진수가 드리블 일본 수비진을 제쳤고, 살짝 내준 공을 아크 근처에 있던 황인범이 받아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직선으로 뻗어나간 공은 그대로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다. 골이 들어가자 경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양 팀은 일진일퇴를 펼치며 골을 노렸고 파울 선언도 많았다. 후반전 들어서도 팽팽한 양상으로 서로의 진영을 오갔지만, 위협적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빠른 역습과 파울 유도로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 22분에는 주세종의 코너 근처 프리킥을 김진수가 헤더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문을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다. 벤투 감독은 후반 28분 김민성을 빼고 문선민(전북현대)을 투입하며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한국은 한 골을 앞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리며 일본의 골문을 위협했다. 후반 33분과 34분에는 이정협과 김진수의 슈팅이 연이어 골문을 살짝 빔나갔다. 한국은 후반 막바지까지 이어진 일본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일본은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 동점골이 간절했다. 한국은 후반 40분 김승규가 일본의 크로스를 선방한 것을 비롯해 마지막까지 침착한 수비를 펼쳤다. 벤투 감독은 후반 45분 공격수 이정협을 빼고 수비수 권경원(전북현대)을 투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결국 한국은 1-0 승리로 챔피언 자리를 지켜냈다.

**2019 EAFF E-1**

**챔피언십 최초 기록 3개 수립**

남자대표팀은 2019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에서 3개의 최초 기록을 달성했다. 첫 번째, 개최국이 우승 자리에 오른 것 두 번째, 2015년 2017, 2019년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 세 번째, 본선(홍콩, 중국, 일본전) 3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우승한 것이다. 2018년 8월 부임해 남자대표팀을 이끌어 온 파울루 벤투 감독은 “우리는 이길 수도, 비길 수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특징과 스타일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들과 그 부분에 대해 신뢰와 자신감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대로 팀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라며 품어온 축구 철학을 소신 있게 밝혔다. 2019 EAFF(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넘버 1 을 가리는 대회) 남자대표팀 3차전인 일본전에서 황인범 선수는 전반 28분 중거리 결승골을 넣으며 일본을 꺾고 우승으로 이끌었은 뿐 아니라 세 경기 모두 선발, 참가해 활약한 황인범 선수는 대회 MVP(Most Valuable Player,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새천년을 향한 부산 체육의 도약

## 01

### 감격의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유치

1980년대 한국 체육의 눈부신 도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체육의 토양을 한결 비옥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산은 개최도시인 서울에 이은 국내 제2의 도시로서 양 대회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다. 다양한 종목에 걸친 부산 선수들의 대활약은 86아시아경기대회 2위, 88올림픽대회 4위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일구는 데 크게 일조했으며, 많은 국내외 대회 경험을 가진 경기인들을 통해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양 대회에 걸쳐 요트와 축구경기 일부를 맡아 안정적인 운영을 펼침으로써 성공적 대회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소중한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개최지 결정 회의는 결국 거수표결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 향방을 결정지었다.

결과는 37 : 4.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부산의 완승이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부산 개최가 결정되는 순간, 부산대표단은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부산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국가적 쾌거이자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쾌거였다. 부산 유치가 결정된 199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사실상 원년으로 지방도시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스스로의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시기에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하기 시작해 끝내 범시민-국가적 염원으로까지 발화시킨 부산 체육계의 입장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결정은 더없이 감격적인 성과였다.

## 03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의 교두보, 1997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1997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부산 유치가 결정된 것은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유치되기 전인 1994년 2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9차 EAGA(East Asian Games Association : 동아시아 경기대회협회)회의에서였다. 동아시아경기대회는 1991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동아시아지역 OCA (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 회의에서 창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1994년 8월 내부사정을 이유로 북한이 들연 개최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동아시아대회는 창설 2회째를 맞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당시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부산시는 여러 경로를 거쳐 제2회 대회의 개최를 권유받게 됐는데, 촉박한 일정상 1997년으로 대회 개최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부산 개최를 결정지었다.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다른 국제적인 종합스포츠대회에 미치지 못했지만, 치열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 유치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과 대회경험의 축적, 아울러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규모 대회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997년 5월 10일 개막해 19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총 8개국에서 3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1997년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는 총 25개 종목, 190개의 금메달을 놓고 동아시아 각국의 경합이 펼쳐졌다. 전 종목에 고루 강세를 보인 중국이 금메달 6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64개를 차지해 2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금메달 45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51개를 따면서 선전했지만 수영과 육상에서 맹위를 떨친 일본(금 47개, 은 53개, 동 53개)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경기 성적은 기대치를 약간 밑돌았지만 대회 운영 면에서 있어서는 개 폐회식 진행과 경기 기록 처리, 선수 수송, 선수촌 운영 등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부산으로서는 대회 운영 관련 노하우를 확보하는 소중한 성과였다.

## 03

### 위기의 부산 체육과 IMF 외환위기

1990년대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부산은 1976년 제57회 대회 이후 24년 만에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 부산 체육의 회생 돌파구를 마련했다.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전반적인 점검의 의미를 함께 띤 이 대회에서 부산은 검소하고 실속 있는 '알뜰 경제체육대회'를 목표로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홍보 등의 각종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흑자로 이끌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성화봉송로, 마라톤코스를 아시아경기대회준비단과 공동으로 확정해 환경투자를 비롯한 예산의 이중투자를 예방하는 한편, 경기 운영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대회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가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부산 선수단이 거둔 성적이었다. 종합득점 6만 130점으로 1987년 제68회 대회 이후 13년 만에 종합 3위에 재진입했다. 이로써 부산 체육은 한결 활기찬 마음으로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라는 국제적 체육이벤트에 전념할 수 있게 됐으며, 21세기를 향한 도약에 힘찬 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01+02

## 01 꿈나무체능단 소식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수) 부산국민체육센터 강당에서 산타행사를 실시했다. 산타와 만나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으며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분위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12월 19일(목)부터 21일(토) 3일간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 겨울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겨울캠프를 통해 단체 활동으로 협동정신 및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가졌다. 단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주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 02 2019년도 아동학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화)에 매년 실시하는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과 올해 처음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2시간에 걸쳐 전 직원(필수 근무자 추가교육 실시)이 성실히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부산국민센터 내 꿈나무체능단을 운영하고 있어 직무상 아동학대 범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분류돼 있다. 이에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받아 그 책임을 다하고자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 센터 내 실태조사,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 03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모집



겨울방학을 맞아해 근교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체육 프로그램 등 7개 종목 15개반이 개설되며 강습기간은 올해 1월 2일(목)부터 31일(금)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역 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충전과 도전의 기회를 갖고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소 제공으로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 수영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원 노 인 : 48,400원	성인 이상
		B반	화,목,토		
		C반	월~금		
07:00~07:50	생활수영	A반	월~금	성 인 : 67,100원 노 인 : 52,800원	청소년 이상
B반		월~금	청소년 : 60,500원		
08:00~08: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10:00~10:50	웰빙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원 노 인 : 48,400원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11:00~11: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67,100원 노 인 : 52,800원	
14:00~14:50	성인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원 노 인 : 48,400원	성인 여성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 인 : 51,700원 노 인 : 48,400원	성인 누구나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39,600원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원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39,600원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원	
18:00~18:50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원 노 인 : 48,400원	성인 누구나
19:00~19:50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67,100원 청소년 : 60,500원 노 인 : 52,800원	청소년 이상
		D반			
21:00~21:50	야간수영			성인 누구나	
15:00~15:50	주말수영(배영이상)	토	25,300원	초2~6년	
12:00~12:50	아쿠아로빅	A반	화,목,토	성 인 : 60,500원 노 인 : 52,800원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C반	월,수,금		
		D반	화,목,토		
12:00~12:50	아쿠아로빅	F반	월,수,금	성인 누구나	
13:00~13:50	아쿠아로빅	E반	화,목(토)	성인 누구나	
18:00~18:50	월자유수영	A반	월~금	성 인 : 53,900원 노 인 : 33,000원 청소년 : 46,200원	청소년 이상
06:00~07:30		B반			
08:00~09:30		C반			
10:00~11:30		E반			
17:00~18:30		F반			

※ 실버수영, 돌고래B, 하마B, 아쿠아E는 토요일 자유수영으로 대체

### + 요가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D반	월,수,금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원
		B반	화,목	
		C반	월,수,금	
11:00~11:50	생활요가	A반	월,수,금	주3일반 성 인 : 50,600원 노 인 : 38,500원 청소년 : 45,100원
		B반	화,목	
14:00~14:50	생활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16:00~16:5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17:10~18:00	아로마요가	C반	월,수,금	
19:00~19:5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20:00~20:50	직장인요가	C반	월,수,금	
		D반	화,목	

### + 생활체육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22:00 토 16:50까지	헬스교실	월~토	성 인 : 47,300원 노 인 : 38,500원 청소년 : 38,500원	청소년 이상	
06:00~06:50	배드민턴	A반	월~목 (강습) 금(자유)	성 인 : 45,100원 노 인 : 38,500원	
07:00~07:50		B반			
08:00~08:50		C반			
09:00~09:50		D반			
10:00~10:50		E반			
18:00~18:50		F반			
19:00~19:50		J반			
20:00~20:50	K반				
21:00~21:50	L반				
18:00~18:50	탁구	A반	월~목 (강습)	성 인 : 41,800원 노 인 : 38,500원	
19:00~19:50		B반			
20:00~20:50		C반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월,수,금	38,500원	초3~6년	
16:00~16:50	농구	A반	화,목	33,000원	초1~6년
17:00~17:50		B반	월,수,금	초 등 : 38,500원 청소년 : 44,000원	초4년~중등
06:30~07:20	필라테스	B반	화,목,토	성 인 : 50,600원 청소년 : 45,100원 노 인 : 38,500원	
09:00~09:50		C반	화,목,토		
09:00~09:50		G반	월,수,금		
10:00~10:50		D반	화,목,토		
14:00~14:50		F반	월,수,금		
19:00~19:50		H반	월,수,금		
20:00~20:50	A반	월,수,금			
21:00~21:50	E반	월,수,금			
15:00~15:50	실내축구	화,목	33,000원	7세~초3년	
16:00~16:50	발레	화,목	33,000원	5세~7세	
17:00~17:50	음악줄넘기	화,목	38,500원	초등학교	
17:00~17:50	어린이발리댄스	월,수,금	38,500원	7세~초등생	
10:00~10:50	에어로빅	A반	월,수,금	50,600원	성인 누구나
18:00~18:50		B반	월~금	51,700원	
16:00~16:50	발리댄스	월,수,금	성 인 : 50,600원 노 인 : 38,500원	성인 누구나	
19:00~19:50	댄스스포츠	초급	화,목	성 인 : 39,600원 노 인 : 38,500원	성인 누구나
		중급	화,목	성 인 : 44,000원 노 인 : 38,500원	

### + 문화 프로그램

※ 재료 및 교재비 별도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14:00~14:50	속독교실	토	25,000원	초등~중학
14:00~14:50	바둑교실	A반	토	30,000원
		B반		
15:00~15:50	바둑교실	토	30,000원	초1~초6
15:10~16:0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원	6~초3
15:10~16:00	동화구연	월	25,000원	5~7세
15:10~16:00	블록놀이(아이링고)	수	30,000원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30,000원
		B반		
16:10~17:00	지니맥	수	30,000원	유치부

+ 문의전화: 051-243-5959

#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01+02

## 01 북구국민체육센터 시무식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월 2일(목) 오후 13시 3층 클럽하우스에서 김영도 센터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업무를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 '2020년 시무식'을 가졌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시무식에서는 작년 한 해의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 해의 목표와 다짐 및 덕담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은 "2011년도에 개관하여 올해로 10년차 운영에 접어든 북구국민체육센터는 그동안의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02 수영장 환경 개선을 위한 공조기 교체 공사완료



수영장 공조기 노후로 인해 수영장 내 실내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 시야 확보와 바닥 미끄럼 안전사고에 취약해진 상태로 수영장 이용하는 회원들의 안전 확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9년 정부에서 시행중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하여 수영장 공조기 교체 공사를 지난해 10월에 시작해 올해 1월 교체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북구국민체육센터는 "회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쾌적한 환경제공을 통해 최적의 환경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생활체육 보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성 인 : 주5회 (68,000원)  
청소년 : 주5회 (6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굿모닝	06:00-06:50	120명
	07:00-07:50	60명
돌고래	08:00-08:50	60명
	09:00-09:50	120명
	10:00-10:50	120명
	11:00-11:50	120명
거북이	15:00-15:50	30명
	17:00-17:50	30명
굿나잇	19:00-19:50	60명
	20:00-20:50	120명
	21:00-21:50	120명

**+ 아쿠아로빅** 주2회 : 44,000원 주3회 :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화/목 (주2회)	50명
	14:00-14:50	월/수/금 (주3회) 화/목(주2회)	80명

**+ 방과후 수영** 어린이 : 46,000원 선수반 : 6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어린이 수영	15:00-15:50	어린이종합반	30명
	16:00-16:50		30명
	17:00-17:50	꿈나무선수반	15명
	18:00-18:50		90명

**+ 주말수영** 성 인 : 45,000원 청소년 : 40,000원 어린이 : 3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주말수영 (성인)	09:00-09:50	토/일 (주2회)	30명
주말수영 (어린이)	10:00-10:50	토/일 (주2회)	30명

**+ (월)자유수영** 성 인 : 48,000원 청소년 : 40,000원 어린이 : 30,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12:00-13: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2부 13:00-17:50	주말/공휴일		
이용요금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비회원
	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스튜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월)회비
요가 (월~금)	19:00-19:50	30명	성 인 : 57,000원 청소년 : 50,000원
중바로빅 (월,수,금)	09:00-09:50		성 인 : 47,000원
뮤직필라테스 (화,목)	09:00-09:50 12:00-12:50	20명	성 인 : 42,000원
에어로빅 (월~금)	10:00-10:50 11:00-11:50	30명	성 인 : 57,000원 청소년 : 50,000원
에어로빅 (월~금)	20:00-20:50 21:00-21:50		성 인 : 57,000원 청소년 : 50,000원

**+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화,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15:50	월,화,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B)	15:00-15:50	수,금	30명	20,000원

**+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자유 배드민턴 (월~금)	06:00-07:50	30명	성 인 : 34,000원 청소년 : 30,000원 어린이 : 20,000원
강습 배드민턴 (월~금)	19:00-20:20 20:30-21:50	40명	50,000원

**+ 헬스 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00 ~ 21:50	성 인 : 46,000원 청소년 : 41,000원
	주말, 공휴일 19:00 ~ 17:50	

**+ G.X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월)회비
머슬메니아 (월,목,금)	11:00-11:50	10명	100,000원

**+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 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존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주 첫째주/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2078

# 영도국민체육센터 소식

01+02

## 0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1월 28일(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할 줄 알면 생존율 40%까지 상승'이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정지 소생 사례, 최초 환자 의식 확인, 119 신고,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의 교육을 진행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은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은 정확한 지식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02 프로의 감성 특.특.특 CS친절교육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1월 28일(목)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의 감성 특.특.특'이란 주제로 양지아 친절서비스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행동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요소 교육을 실시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주거적인 교육 및 직원 힐링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의 사기를 돋울 뿐 아니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03 제1회 영도구스쿼시연맹 회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참가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2월 14일(토) 영도구스쿼시연맹 주최, 영도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영도구스쿼시연맹 회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에 참가했다. 본 대회는 50여 명의 참가로 진행되었으며 대회 결과 여자근린혼부 1위 김슬아 회원, 여자미니엄부 1위 최예지 회원, 3위 송서연 회원, 남자미니엄부 3위 이지훈 회원이 차지했다.

#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 + 성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6시]굿모닝수영	주6일 성인	06:00~06:50	월~토(주6일)	65,000
	A반	06:00~06:50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7시]생활수영	주6일 성인	07:00~07: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8시]새아침수영	주6일 성인	08:00~08: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9시]몽땅수영	주6일 성인	09:00~09: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10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0:00~10: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11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1:00~11: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14시]어울림수영	14시 성인	14:00~14:50	월,수,금	45,000
	주5일 성인	16:00~16:50	월~금(주5일)	61,000
[16시]어울림수영	E반	16:00~16:50	월,수,금	45,000
	F반		화,목	35,000
[18시]직장인수영	주5일 성인	18:00~18:50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19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19:00~19:50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20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20:00~20:50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21시]야간수영	주5일 성인	21:00~21:50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 + 60세 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13시]실버건강수영	13시 만60세 이상	13:00~13:50	월~금(주5일)	61,000
	A반	13:00~13:50	월,수,금	45,000
[14시]실버건강수영	B반	13:00~13:50	화,목	35,000
	C반	14:00~14:50	월,수,금	45,000

###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아쿠아로빅	A반	12:00~12:50	월,수,금	60,000
	B반	12:00~12:50	화,목,토	60,000
	B-1반	12:00~12:50	토	25,000
	C반	15:00~15:50	월,수,금	60,000

### +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유아 수영	소그룹 B반	만4~6세	17:00~17:50	화,목	60,000	
어린이 수영	고래	A반	초등	16:00~16: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상어	A반	초등	17:00~17: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돌고래	A반	초등	18:00~18: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토요 수영	B반	초등	15:00~16:40	토	30,000	

### + 월 자유수영 프로그램(1일 1회)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자유수영	A반	성인	07:00~09:00	월~금(주5일)	55,000
	B반		14:00~16:00	월~금(주5일)	55,000
	C반		20:00~21:30	월~금(주5일)	55,000

\* 중간에 쉬지 않고 25m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활을 목적으로 걷거나 뛰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 체육 프로그램

### + 골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골프 스쿨	중학생 이상	A반	06:00~07:30	월,화,목,금-지도 수,토-연습 -연습시간- 수-수업 시간 토-06:00~17:30	100,000
		B반	07:30~09:00		
		C반	09:00~10:30		
		D반	10:30~12:00		
		E반	12:00~13:30		
		F반	13:30~15:00		
		G반	15:00~16:30		
		H반	16:30~18:00		
		I반	18:00~19:30		
		J반	19:30~21:00		
		K반	21:00~22:30		

### + 탁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탁구교실	C반	성인	09:00~10:30	성인 55,000 청소년 50,000 어린이 45,000
	D반		10:30~12:00	
	F반		18:00~19:30	
	G반		19:30~21:00	
	H반		21:00~22:30	
I반	성인	12:00~13:30		

### + 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댄스포츠	A반	성인	20:00~20:50	월,수,금	45,000
			21:00~21:50		
시니어(실버) 댄스포츠	중급	50세 이상	13:00~13:50	화,목	30,000
	초급		14:00~14:50		

##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다이어트(태보)	C반 성인	18:00-18:50	월,수,금	45,000
다이어트 방송댄스	A반 청소년	19:00-19:50	월~금(주5일)	성인 : 55,000
	B반 이상	20:00-20:50		청소년 : 50,000
	C반 성인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어린이 방송댄스	- 초등	17:00-17:50	월,수,금	40,000
줌바댄스	A반	11:00-11:50	성인	40,000
	B반	19:00-19:50		
	C반	20:00-20:50		
	D반	21:00-21:50		
	E반	11:00-11:50		
	F반	21:00-21:50		
파워로빅	A반 성인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B반	10:00-10:50		
벨리댄스	A반	11:00-11:50	성인	45,000
	B반	12:00-12:50		
	C반	19:00-19:50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활력요가	주5일	20:00-20:50	월~금(주5일)	성인 : 55,000 청소년 : 45,000
	A반	20:00-20:50	월,수,금	성인 : 40,000 청소년 : 35,000
햇요가	주5일	19:00-19:50	월~금(주5일)	성인 : 95,000 청소년 : 85,000
	C반	11:00-11:50	월,수,금	성인 : 75,000 청소년 : 65,000
	D반	19:00-19:50	화,목	성인 : 50,000 청소년 : 40,000
	E반	19:00-19:50	월,수,금	성인 : 75,000 청소년 : 65,000
	G반	20:00-20:50	화,목	성인 : 50,000 청소년 : 40,000
	필라테스	A반	10:00-10:50	화,목
A-1반		10:00-10:50	화,목,토	45,000
C반		19:00-19:50	화,목	35,000
B반		20:00-20:50	화,목	35,000

### + 즐넉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음악즐넉기 교실	초급	16:00-16:50	월,수,금	40,000
	중급	17:00-17:50		
		10:00-10:50		

### + 헬스 프로그램(1일 1회 입장)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헬스교실	청소년 이상	06:00-22:00	월~금 토(06:00~17:00)	성인 : 44,000 청소년 : 39,000

### +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새벽요가	A반	06:00-06:50	월,수,금	40,000
굿모닝요가	A반	08:00-08:50	월,수,금	40,000
웰빙요가	주5일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A반		월,수,금	40,000
	B반		화,목,토	40,000
	B-1		화,목	35,000
다이어트요가	주5일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A반	10:00-10:50	월,수,금	40,000
힐링요가	주5일	11:00-11:50	월~금(주5일)	55,000
	B반		화,목	35,000
자세교정요가	A반	17:00-17:50	월,수,금	성인 : 55,000 청소년 : 45,000
	주5일	18:00-18:50	월~금(주5일)	성인 : 55,000 청소년 : 45,000
파워요가	A반		월,수,금	성인 : 40,000 청소년 : 35,000
	B반		화,목	성인 : 35,000 청소년 : 30,000
몸뎡요가	주5일		19:00-19:50	월~금(주5일)
	A반	19:00-19:50	월,수,금	성인 : 40,000 청소년 : 35,000

### + 스쿼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웰빙스쿼시	A-1	09:00-09:50	화,목,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A-2	09:00-09:50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C-1	10:00-10:50	화,목,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C-2	10:00-10:50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E-1	11:00-11:50	화,목,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E-2	11:00-11:50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체력증진 스쿼시	E-1	18:00-18:50	초등 3년 이상	월,수,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어린이 : 50,000
	E-2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어린이 : 80,000	
직장인 스쿼시	A-1	19:00-19:50	월,수,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A-2	19:00-19:50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C-1	20:00-20:50	월,수,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C-2	20:00-20:50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E-1	21:00-21:50	월,수,금	성인 : 70,000 청소년 : 60,000	
	E-2	21:00-21:50	월~금	성인 : 100,000 청소년 : 90,000	

### +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항공드론	초등	16:00-16:50	화	30,000	
발레교실	유아	유아	16:00-16:50	화,목	33,000
	A	초등	17:00-17:50	화,목	33,000

\* 재료비 별도

+ 문의전화 : 051-405-0050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소식

01+02

### 01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신년사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전 구민이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조성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명랑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2013년도 3월 건립된 생활체육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해 나가고 있다. 개관 후 6년간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의 증설, 회원 만족도 증대 및 회원 유치 증대 등으로 2019년 흑자 운영으로 돌아섰다.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20년 한 해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02 부산-김해 경전철 모서리 광고 게재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체육시설 홍보로 부산-김해 경전철 내 모서리 광고를 게재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진과 위치, 운영 프로그램의 게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센터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센터 광고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듯하다.

### 03 2019학년도 초등 수영방학특강교실 운영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수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겨울방학 수영 프로그램은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평소 운동 부족인 학생들에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 수영 프로그램(월~금)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06:00~06:50	새벽수영		130
07:00~07:50			30
08:00~08:50			건강수영 성 인 : 60,500원 청소년 : 52,800원 어린이 : 44,000원
09:00~09:50	어린이수영	80	
10:00~10:50		90	
11:00~11:50	저녁수영	120	
14:00~14:50			
16:00~16:50			
17:00~17:50	자유수영	성 인 : 48,400원 청소년 : 44,000원	10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08:00~09:00			
12:00~19:00			

### + 주말 수영레슨(토요일~월 4회 기준)

시간	프로그램	대상	회비	정원
09:00~09:50	토요일수영레슨A	초3~성인	60,000원	10
	토요일수영레슨B			
10:00~10:50	토요일수영레슨C	어린이	60,000원	10
	토요일수영레슨D			
16:00~16:50	토요일수영레슨E	초3~성인		

###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13:00~13:50	화,목	44,000원	50
15:00~15:50	월,수,금	60,500원	60

### + 헬스 프로그램(월~토, 공휴일)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06:00~22:00	월~금	성 인 : 44,000원 청소년 : 38,500원 ※수시 접수 가능	500
09:00~18:00	토		
09:00~17:00	공휴일		

★ 헬스 회원에게는 헬스복, 땀수건 지급

### + 생활체육 프로그램(월~금)

시간	스튜디오 1	스튜디오 2	회비	
06:10~07:00		모닝요가	성 인 : 55,000원 청소년 : 49,500원	
07:00~07:50	바디쉐이핑			
09:00~09:50	에어로빅	바디쉐이핑		
10:00~10:50	보라춤바댄스	바른자세요가		
11:00~11:50	필라테스	웰빙요가		
12:00~12:50		바디쉐이핑		
18:10~19:00	필라테스			
18:30~19:20		파워요가		
19:10~20:00	바디쉐이핑			
19:30~20:20		다이어트요가		
16:00~16:50	어린이 체육교실 3층 체육관(화,수,금)			초등학생 : 40,000원
20:10~21:00	라인댄스(월,수,금)			성 인 : 48,000원

### + 일일입장

시설	요일	시간	대상	회비
수영장	월~금	08:00~09:00	청소년 이상	성 인 : 3,300원 청소년 : 2,700원 어린이 : 2,200원
		12:00~19:00		
	토	09:00~18:00	누구나	
배드민턴	공휴일	09:00~17:00		
	월~금	06:00~10:00	청소년 이상	성 인 : 2,200원 청소년 : 1,500원
	월,목	16:30~18:00		
화,수,금	14:00~18:00			

※ 어린이 생존수영기간 중 9:00~12:00 자유수영 입장불가  
 ※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 토·공휴일 11:30~13:00(수질 정화)  
 ※ 수영장 일일입장의 경우 어린이 생존수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제한 및 시간변동  
 ※ 배드민턴(체육관)입장 시 반드시 배드민턴화 착용

### + 접수 안내(현장 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시간
기초회원(재등록)	매월 20일~23일까지	07시~21시
신규회원	24일부터	09시~21시
토·공휴일 접수 시		09시~17시

※ 일반인,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  
 ※ 매주 일요일은 휴관일이라서 등록 불가  
 ※ 접수기간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정원의 50% 미달 등록 시 폐강될 수 있음  
 ※ 헬스는 수시접수 가능

### ※ 할인제도 안내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유공자증, 유족확인서)
- 장애인(1~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동일프로그램) : 50% 장애인(4~6급) 본인 : 50%(본인 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증명서 매달 제출)
- 장기수강회원 :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30%(본인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족(유효기간 내 가족사랑 카드 소지자) : 30%
- 2종목 이상 등록회원 : 10%
- 수영 여성회원(만12세~만54세) 보건 할인 : 10%
- 강서구 구민 : 20%(주민등록 등본 지참- 3개월마다 제출)
- 중복할인 불가

+ 문의전화 : 051-717-3555

### + 운영시간

평 일	06:00~22:00	공휴일	09:00~17:00
토요일	09:00~18:00	토·공휴일	11:30~13:00 수영장 입장 제한(수질 정화)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 구·군체육회 소식

01+02

### 서구체육회

#### 제5차 서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9일(목) 서구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서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16명의 이사들과 5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변동 사항, 회장선거 집행현황, 2020년 사업계획 및 회계 보고, 구정 업무보고 등으로 진행했다.

### 동구체육회

#### 2019 어린이체능교실 개최



지난해 12월 28(토) 양산 에덴밸리 스키장 및 썰매장에서 초등학생 1~6학년까지 32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어린이체능교실'을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스키장, 썰매장, 빙어잡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며 함께하는 즐거움과 협동심을 느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영도구체육회

#### 2019년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개최



지난해 12월 27일(금) 목장원 오비스타홀에서 임원 및 동호인, 체육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1부 행사에는 영도구태권도협회 시범단의 축하공연으로 박력 있는 시범과 기합을 선보이고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에 대한 영도구체육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색소폰 연주와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 자리를 마련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부산진구체육회

#### 제29회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난해 12월 21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뛰어난 스포츠맨십과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결과는 1부 품새 1위 국가대표 세계태권도, 2위 신주례태권도, 3위 성지민태권스쿨이 차지했고 2부 품새 1위 성지민 태권스쿨, 2위 신주례태권스쿨, 3위 장무태권도장이 차지했다. 1부 겨루기 1위 현대유성태권도, 2위 언지청운태권도, 화신탈권도가 차지했으며 2부 겨루기 1위 현대유성태권도, 2위 금빛나래태권도, 3위 한신탈권도가 차지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1+02

## 동래구체육회 제16회 동래구청장기 족구대회 개최



지난해 11월 17일(일)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동래구청장기 족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동호인의 경기력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자리였다. 대회 결과 일반부 1위 일월 2위 버팔로A 공동3위 버팔로B, 안락이 차지했고 장려상 은사 버팔로C, 관내부 1위 일월A, 2위 버팔로A, 공동3위 한마음A-버팔로D, 관내 2부 1위 버팔로B, 2위 경동B, 공동3위 버팔로C-한마음B가 각각 차지했다.

## 북구체육회 2019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개최



지난해 12월 21일(토) 경남 양산시 에덴밸리 리조트 스키캠핑장에서 북구 관내 초등학생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년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겨울스포츠인 스키를 통해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 남구체육회 제39회 남구축구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해 12월 15일(일) 백운포체육공원에서 500여 명의 축구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9회 남구축구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간의 우정을 쌓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 해운대구체육회 제1회 해운대구공수도연맹회장배 공수도대회 개최



지난해 11월 30일(토) 공수도 본부도장에서 '제1회 해운대구공수도연맹회장배 공수도대회'가 개최됐다. 결과로는 유치부 개인형-조대현, 개인대련-채주안, 초등부 1학년 정태규, 2학년A 개인형-염호빈, 개인대련-박도영, 2학년B 개인형-김 산, 개인대련-김지우, 3~4학년-김왕건, 5~6학년 개인형-양승훈, 개인대련-윤동재, 중학부 개인형-김윤민, 개인대련-장윤형, 고·일반부 개인대련-유태경, 여자 초등부 4~5학년-정규비, 여자 6학년-남혜진 선수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공수도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금정구체육회 제3회 금정구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지난해 12월 1일(일) 두구동인조잔디축구장에서 '제3회 금정구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축구장 시설완공기념 개장식과 금정구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개회식을 신설구장에서 진행했다. 새벽까지 비가 오는 흐린 날씨였지만 많은 내외빈들과 동호인들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 일반1부 - 우승 : S&T모티브A, 준우승 : 송정A, 공동3위 : 위드A, 금샘B
- 일반2부 - 우승 : 금샘C, 준우승 : 스카이B, 공동3위 : 하나B, SnT모티브B
- 일반3부 - 우승 : 대호B, 준우승 : 한마음A, 공동3위 : 한마음B, 위드B
- 최우수선수상 - 강경중, 우수선수상 - 김선기
- 최우수감독상 - 김충남, 우수감독상 - 서해득
- 최우수심판상 - 박강섭, 우수심판상 - 이창용
- 페어플레이상 - 최현기 님

## 연제구체육회 연제구체육회장 선거 관계자 종목별 회의 개최



지난해 12월 10일(화) 연제구청 소회의실에서 15개 종목 15명의 종목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제구체육회장 선거 관계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선거인수 배정 및 선거인 후보자 종목별 회의를 진행했다.

## 강서구체육회 제12회 강서구 청소년농구클럽대항 3대3 농구대회 개최



지난해 11월 29일(금) 낙동중학교 한술관에서 '제12회 강서구 청소년농구클럽대항 3대3 농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4개 중학교에서 총 10팀이 참가하였으며 1위는 신호중A, 2위는 신호중B, 공동3위는 명호ACE, 명지A팀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로 아이들의 숨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 수영구체육회 2019 수영구 축구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해 12월 8일(일) 수영구 축구협회는 수영중학교에서 '2019 수영구 축구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됐다. 개회식은 10시에 진행됐으며 구의장, 구의원, 수영구체육회장, 수영구청 및 체육회 직원, 많은 선수들이 자리에 함께했으며 2019년 7월에 창단한 여성축구단도 함께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기장 안에서는 함성의 소리가 밖에서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승은 올린클럽, 준우승은 맘미클럽이 차지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01+02

## 사상구체육회 2019 사상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추계대회 개최



지난해 12월 1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14개 클럽 576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사상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추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추계대회는 동호인들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경기 결과는 이지스클럽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거뒀다.

##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체육회 체육인의 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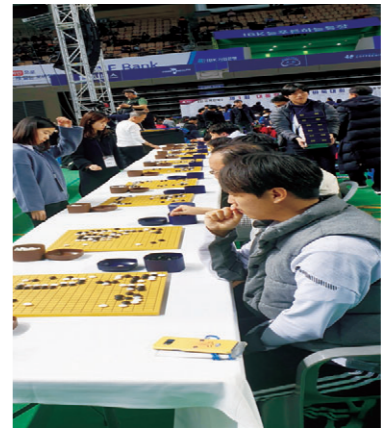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3일(금) 기장군체육회는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사무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 동양가든에서 '2019년 기장군체육인의 밤'이 개최됐다. 이날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는 2019년 사업추진 실적보고와 우수회원종목단체 시상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회원종목단체 소식 01+02



## 바둑협회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참가



+ 대회결과

구분	부문	결과	성명	비고
단체전	전국시·도 단체전	부산광역시 준우승	박수창, 박재동, 박태영, 송재환, 김세영, 한유정, 박한솔	전국체전 선수
	전국학원 1학년부	우승	정영욱	연구생
개인전	전국유단자부 3-4학년부	장려	김범찬	연구생
	전국여학생 5-6학년부	3위	김영경	연구생
	방과후 여자고학년부	우승	임사량	연구생
	방과후 남자고학년부	우승	임동현	연구생

지난해 1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양일간 '제1회 대통령배바둑대회'가 경기도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국기원(재)과 대한바둑협회(사), 화성시체육회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바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전국단체부, 개인부, 학생부, 화성학생부 등 56개의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명사초청 페어바둑대회, 프리기사 팬 사인회, 지도다면기 등으로 바둑축제를 방불케 한 흥겨운 잔치였다. 우리 부산에서는 14명의 선수가 참가해 전국시도단체전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 스쿼시연맹 제4회 부산스쿼시연맹회장배 구·군대학 스쿼시대회 개최



스쿼시연맹은 지난해 11월 30일(토) 경성대학교 27호관 스쿼시장에서 '제4회 부산스쿼시연맹회장배 구·군대학 스쿼시대회'를 개최했다. 약 12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구·군을 대표하는 동호인들이 자신의 지역 소속감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구·군체육회에 미가입된 구·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구·군연맹체 구성의 필요성과 스쿼시 종목에 대한 자긍심을 참가한 동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대회결과 1위 금정구A, 2위 금정구B, 공동 3위 남구, 사하구가 각각 차지했다.

## 피구협회 2019년 2학기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겸 제2회 부산광역시 피구연맹회장기 피구대회



피구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양일간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에서 '2019년도 2학기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겸 제2회 부산광역시피구연맹회장기 피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여초, 남초, 여중, 여고등부의 경기로 나뉘어 예선-본선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우수한 실력을 거둔 덕계초등학교 클럽팀을 초청하여 번외경기를 진행해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초등 남자부 오선초등학교, 여자부 오선초등학교, 여자중학부 사직여자중학교, 고등 여자부에선 동주여고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과 피구크리에이티브 '피구왕 흥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피구연맹 사무국장은 "부산의 학교스포츠클럽 실력이 나날이 향상됨으로써 피구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기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병행하는 건강한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부산공공 스포츠클럽 소식

01+02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참가



지난해 11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포항체육관에서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가 개최됐다. 교류대회에 부산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은 테니스와 생활체조 종목에 참가하여 테니스에서는 시니어부 3위, 성인부 2위, 초등전문선수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체조에서는 청소년부 3위를 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전국 스포츠클럽 간의 교류의 장으로 대회로 생활체육 회원과 전문체육 선수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자리 매김하였다.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Get Set 부상예방교육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해 12월 2일(월) 부산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주치의와 물리치료사를 초빙해 부산지역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을 대상으로 Get Set 부상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부산지역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과 지도자,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해 부상방지 예방 스트레칭의 필요성과 부상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종목별 교류전 개최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해 12월 15일(일), 21일(토)에 걸쳐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에서 피구와 배드민턴 종목별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날은 경기력 중심이 아니라 여러 동호인들에게 스포츠클럽 브랜드 홍보와 문화를 보급하고 회원들 간의 정보공유와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해 스포츠클럽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는 축제가 되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앞으로 많은 클럽과의 교류전을 꾸준히 이어가며 클럽 간 교류증진과 회원들의 클럽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생활체육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부산공공 스포츠클럽 소식

01+02

##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수영 종합우승 쾌거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해 11월 2일(토)~3일(일) 걸쳐 포항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에 참가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수영선수단은 성인여자부 2위, 학생여자부 2위, 학생남자부 1위의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이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설립된 지 2년이 된 신생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97개 클럽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진행되는 부산광역시 클럽교류대회 및 전국 클럽교류대회 등 많은 대회에 참가해 클럽회원들의 기량 향상과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스포츠클럽 육성의 고위사업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향후 클럽운영에 대해 전했다.



## 동래스포츠클럽 동래 구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동래스포츠클럽은 지난해 11월부터 "동래 구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개설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 목격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 등 타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체육센터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동래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월 1회 상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동래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 교육내용

시간	내용	교육비	정원
14:00 ~ 14:10	심정지 발생 후 응급처치 실제 사례 영상	무료	14명
14:10 ~ 14:20	심폐소생술 개요		
14:20 ~ 14:25	골든타임, 시간대 별 생존율		
14:25 ~ 14:35	흉부압박 방법		
14:35 ~ 15:00	심폐소생술 실습		

# 울긋불긋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주의



피부염이라는 용어는 습진과 동의어로 쓰이며 아토피성 피부염, 자극 접촉피부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지루성(脂루성) 피부염과 같이 습진성 피부염 및 페데러스 피부염·독나방 피부염 등 곤충이 원인인 피부염에 대해서도 사용한다.

이 가운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2010년 다빈도 질병 순위 14위를 기록하다가 2017년 11위에 올랐다. 접촉 피부염은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함께 피하도록 해야 한다. 원인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과민하지 않은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피부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극심한 경우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심한 환자 중에는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표현하는 환자들도 있다. 습진(혹은 피부염)은 각질(또는 인설)을 동반한 붉은 발진으로 나타나고 급성 시기에는 진물, 수포를 보이며 만성화될수록 건조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를 보이는 피부질환을 통칭한다. 습진의 종류에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임상 양상이 서로 유사하고 대부분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소아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이 가장 흔하지만, 노인에서는 건조피부염, 지루피부염이 비교적 흔히 관찰돼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습진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 ?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원인 및 진단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 물질은 보통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 아니라 부르며 이는 정상인에게도 피부병을 일으키지 않으나, 이 물질에 민감한 사람에게만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접촉 부위에 가려움증 동반한 홍반이 생기고 심하면 수포도 생길 수 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진단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 취미 및 본인이 접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 접촉 피부염은 접촉 부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원인 물질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을철에는 흔히 은행나무(Ginkgo biloba)의 열매에 반응한 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화상 벌레”가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화상 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개미반날개”로,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한다. 이 벌레와 접촉하면 하루 만에 수포가 발생하고 작열감을 동반하는 발진과 까집, 딱지 등이 발생하는 “페데러스 피부염”이 나타난다.

또한 여러 화학 물질들에 의한 것으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고무, 머리 염색약, 보존제, 금속 도금과 액세서리에 많이 사용되는 니켈이나 기타 크롬, 코발트 등도 문제가 된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제나 향료, 다양한 화장품 성분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함께 피하도록 해야 한다.

## 1 지루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

지루피부염은 유아 및 성인의 피지샘이 풍부한 부위에 흔하게 발생하며 주로 두피나 얼굴의 홍반 위에 건선이나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이다. 몸통 상부에도 자주 발생하며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다. 주로 중년 남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나 말라세지아 곰팡이, 면역학적 이상, 피지샘의 활성화 그리고 환자의 개인적 감수성 등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악화할 수 있고 얼굴의 운동장애와 피지의 축적을 동반하는 신경과 질환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들에서 잘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고 흔하게 두피의 비듬 형태로 나타나지만 중증에서는 심한 가려움증과 작열감이 있고 두꺼운 딱지로 진행할 수 있다.

## 2 건성 습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피부 표면의 지질 감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부 변화의 정확한 병인은 불확실하다. 팔다리 특히 정강이 부위에 미세한 비늘을 동반한 홍반성 반으로 시작되며 진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도자기에 발생한 균열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주로 정강이, 팔의 펄부위, 옆구리와 손등에 잘 발생하고 습도가 낮은 환절기나 겨울에 노년층에 호발한다.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표피의 수분 장벽이 손상돼 수분손실이 증가되어 있다. 겨울철이나 건조한 계절에 세정력이 강한 비누로 자주 목욕하는 중년 이후의 사람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환경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겨울철에 난방으로 건조한 경우 가습기를 켜 두고 목욕의 시간과 횟수를 줄이며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고 뜨거운 목욕을 피한다.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고 심한 부위에 국소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도움이 된다.

## 3 동전 습진(화폐상 습진)

동전 습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비교적 경계가 잘 구분되는 동그란 동전 모양의 습진성 판이 생기고 잔 물집이 다수 발생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긴다. 외상 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로 팔다리의 굽히는 부위에 발생한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흔히 노년층 환자의 건조한 피부와 연관성이 있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가려움증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목욕과 세정력이 강한 비누 사용, 건조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중등도 이상의 국소스테로이드를 하루 1-2회 도포하거나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진정 작용이 있는 H1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거나 국소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스테로이드의 병태 내 주사나 전신적인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 4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아토피피부염은 가장 많이 알려진 피부질환으로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돼 다양한 자연 경과를 보인다. 가려움증이 심하고 연령에 따라 호발 부위와 병변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조절되지 않는 가려움증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기오염, 기후적 요인, 주거환경 변화로 인한 항원에 노출 증가, 소아기 항생제 사용 증가, 서구화된 생활방식,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등을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토피피부염은 피부 장벽 기능, 면역체계의 이상, 환경적 요인 등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70~80%에게 아토피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질환이다.

# 스포츠 뉴스

## News ● 01

### 2019 대한체육회 혁신 워크숍 개최



지난해 12월 27일(금)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임직원 150여 명과 함께 “2019 대한체육회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 조직혁신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 사회적 가치, 청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문화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관련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종목단체 운영 우수 혁신사례(대한철인3총합회) 소개, 인권 경영 및 청렴도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임직원 업무추진 동기 부여를 위해 전사적으로 실시한 고객 만족도(전화 친절도) 조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모전, 사업업무 우수성과 공유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 대한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지난 9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11월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제정한 “대한체육회 인권경영 헌장”을 함께 낭독하고, 인권경영 규범 및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직원들의 다양한 혁신 의견이 향후 상향식 조직문화를 혁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며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대한체육회가 인권·고객 친화적 경영문화를 선도하고 청렴도도 대폭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News ● 02

###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우수강사 선정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3일(월) 올림픽문화센터에서 2019 스포츠인권교육 우수강사를 선정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또한, 우수강사로 선정된 상위 10명에게는 내년도 전문강사 선발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강사 선정은 체육회가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2,086명의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스포츠인권교육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우수강사 선정이 스포츠인권 교육 전문강사 분들에게는 동기 부여의 계기가, 체육인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우수강사 격려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선발·양성·보수교육 과정을 거친 63명의 전문 강사진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로 위촉해 지난 6월부터 전국의 학교운동부, 스포츠연수기관,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체육회는 심·명·내 정서지원 프로그램, 국가대표 인권교육 등 총 790회, 40,301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총 5,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종합체육대회 현장 설문조사에서 “스포츠 폭력·성폭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약 75%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작년 대비 6.33%가 더 향상된 바 있다. 이는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의 성과로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체육회

## News ● 03

### 2019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7일(화)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상임심판제도의 종목별 운영 성과와 실적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9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평가회는 종목별 상임심판 125명,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장 및 담당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상임심판제도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종목별 운영성과 및 활동실적 발표 ▲2020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계획 설명 ▲심판 신뢰 리더십 교육 등 상임심판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적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은 상임심판제도 사업 시행 7년차를 맞는 해로, 본 제도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상임심판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직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상임심판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4년부터 공정한 판정문화 확산 및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임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구, 유도, 테니스 등 총 19개 종목에서 125명의 상임심판을 선발해 수당 지원 및 직무교육, 전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News ● 04

### 2019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태릉선수촌에서 체육회 임직원, 17개 시·도체육회(시·도청, 교육청 포함),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평가회에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각 주관 단체의 개최 결과 보고가 있었다. 또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폐회식 행사, 종합 시상 등 전국종합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및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참가자 전체 토의를 통해 경기종목, 종별, 세부종목 경기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및 참가 자격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전체 토론에서는 금년도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사항인 학생체육축전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아울러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 선수단 인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전문강사와 함께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과 함께 선수 진로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도 안내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평가회에서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대회 운영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에 필요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운영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스포츠 뉴스

News ● 05

## 스포츠7330봉사단 6기 해단식 및 성과공유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 7일(토)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스포츠7330봉사단 6기 해단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스포츠7330봉사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생활체육 동호인, 은퇴선수, 대학생 등 21개조 총 195명으로 구성된 6기 스포츠7330봉사단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전국의 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여 회의 체육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포츠7330봉사단 6기 단원을 포함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하며 봉사단원이 올 한 해 동안 활동한 영상 상영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했다. 봉사단 활동을 모두 마친 단원들은 활동인증서를 받았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 선정 및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최우수 봉사

조로 선정된 ‘Firebird’는 한양대학교 중앙야구동아리 소속 대학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동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야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지역 사회 스포츠 사회공헌에 앞장서왔다. Firebird 조장인 권재현(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학생은 “스포츠7330봉사단 활동을 통해 좋아하는 야구에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대상자뿐만 아니라 봉사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체육봉사 활동이 지속 전파·확산되어 제2, 제3의 Firebird 봉사단이 탄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6

##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진로올림픽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양일간 태릉선수촌에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진로올림픽”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생생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대한체육회 및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선수 출신, 체육 전공자 등 스포츠 전문 경력을 갖춘 멘토들과 함께 태릉선수촌의 체력단련장, 의무실, 영상분석실 등 실제 현장에서 직업 체험을 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미니 올림픽(진로 개발의 필수 역량인 지도력, 협동심, 상호 이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진로 올림픽(분야별 진로 체험 공간에서 멘토들과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졌다.

직무 분야는 선수들의 유망·희망 진로를 고려하여 스포츠 전문성 활용 분야(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스포츠심리상담사, 국제스포츠기구), 운동능력 활용 분야(경찰, 군인), 스포츠 콘텐츠 활용 분야(미디어, 마케팅, 창업 등)의 10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 12월 6일(금)에는 스포츠-레저 기업 설명회 및 멘토 특강으로 구성된 미니 잡 콘서트를 함께 개최해 선수 경력자(은퇴선수)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일반 중·고교, 체육 중·고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 지방(도서산간지역 등), 다문화 가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으로 참가대상을 다양하게 넓히고 진로체험과 함께 스포츠·인문·예술 활동 프로그램도 구성해 청소년 선수와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 가능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7

## 2019년 회원종목단체 하반기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1박 2일 간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사람중심! 인권 존중! 함께하는 체육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 회원종목단체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200여 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육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스포츠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스포츠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체육회에서 배포한 “스포츠인권 가이드스” 내 업무 매뉴얼을 활용해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공유했다. 또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스포츠 혁신 과제, 대한체육회 혁신계획 방안 등 3단 안을 소개하고 체육

단체 구조개편 등 쟁점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국가대표 훈련 방식도 “훈련은 효율적으로 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간 합숙하는 형태의 훈련 시스템을 종목별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외에도 이번 워크숍에는 전화 응대 CS(Customer Service, 고객센터,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교육, 건강 관리법, 회원종목단체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유도 남자 66kg 이하급 동메달리스트인 조준호 선수가 “재능”을 주제로 한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체육계 대내외의 혁신 기조와 관련해 이번 워크숍이 체육가족이 함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뜻을 모으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8

## 대한체육회, 제4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수료식 가져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 3일(화) 오후 4시 올림픽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명예기자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스포츠7330 캠페인”을 알리고 매월 다양한 주제로 대한민국 체육 현장 및 생활체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학생 명예기자단 9명은 개인과제와 조별과제를 기한 내에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 취재, 생활스포츠 체험 및 소개, 소통 지수 등 다양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점을 인정받아 수료증을 받았다. 활동 실적이 뛰어난 최우수·우수 명예기자 각 1명과 우수 1팀은 소정의 시상품도 함께 수여받았다. 최우수 명예기자로 선

정된 이윤립(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은 “대한체육회 명예기자단 활동을 통해 일상과 스포츠를 잇는 여러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작성한 기사들이 누군가에게 건강한 일상을 만들고 스포츠에 관심을 두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단은 생활체육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며, 전국체육대회 및 스포츠 주요 행사 현장을 취재해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형 기사 콘텐츠로 팔로워들에게 생생한 체육현장을 전달해 대한체육회와 스포츠7330 캠페인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얼음 위 드로잉, 빙상 위 꽃핀 예술,

## 스케이팅

겨울 스포츠 하면 스케이팅, 그 중에서도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이 대표적이다. 스케이팅 경기에 필요한 얼음을 얼리는 데는 90여 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얼음 높이가 1cm이기 때문에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꼬박 열흘 동안 공을 들여야 한다.

또 경기 종목마다 적합한 얼음 두께가 달라 끊임없는 빙질의 체크도 필수다. 선수들은 수십 년간 빙상 위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량을 다진다. 하지만 경기는 수분 내에 끝난다. 얼음 위에 피어나는 짜릿한 예술, 단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국을 빛낸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응원하고 환호하며 감동했다. 역사적이면서 특별하고도 가슴 찡릿한 순간을 안겨준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12~13세기 강철로 된 스케이트 역사

스케이팅은 구두 바닥에 쇠로 만든 칼날 같은 기구를 단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지치는 운동이다. 경기 종목으로는 스피드스케이팅·피겨스케이팅·아이스하키 등이 있다. 스케이팅은 겨울이 길고 추운 북유럽에서 교통수단으로 고안한 게 그 시초다. 스케이팅은 동물의 뼈로 스케이트를 만들어 사용했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기원을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운동경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로 행해졌으며 철을 사용함과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강철로 된 스케이트가 만들어진 것은 12~13세기로 알려져 있다. 이를 경주에 이용한 것은 17세기 들어서면서다. 1676년에 네덜란드에서 이미 경기가 열렸다고 한다. 이후 스케이팅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1742년 영국에 세계 최초로 스케이트 클럽이 생겼다. 스케이팅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은 뒤 미국과 캐나다로도 전파돼 1849년 필라델피아에서 스케이팅 클럽이 창설되었고 1850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 스케이트장이 건설, 선수권 대회도 개최됐다. 그러나 첫 근대적인 스케이팅 대회는 1863년 노르웨이에서 개최됐고, 1885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첫 번째 국제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1889년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개최, 1892년 네덜란드의 주도로 국제스케이팅연맹이 조직되어 국제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올림픽대회에는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대회가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리자 스피드스케이팅이라는 종목으로 정식 채택 되었다. 초기 올림픽대회에서는 남자부 경기만 열렸지만 1960년 스쿼밸리 대회 때부터 여자부 경기도 추가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는 남녀 매스스타트 종목이 추가되었고 올림픽대회에는 남녀 각 7종목씩 총 1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더욱 빠르게,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방법**

속력을 겨루는 경기로서 남자는 500m · 1,000m · 1,500m · 3,000m · 5,000m · 10,000m, 여자는 500m · 1,000m · 1,500m · 3,000m 종목이 있다. 경기 방법으로는 더블 트랙 경기와 싱글 트랙 경기가 있다. 더블 트랙 경기는 추첨에 의해 2사람씩 조를 짜고 안쪽 코스와 바깥쪽 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지치는 경기다. 거의 모든 대회는 이 방법으로 한다. 또 싱글 트랙 경기는 여러 선수가 같은 코스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방법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은 2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더블 트랙 레이스(Double Track Race)”를 펼치는 경기로 언뜻 쇼트트랙과 비슷하지만 스피드스케이팅은 직선 구간이 길고 400m의 긴 트랙에서 경기가 진행된다는 게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생소한 단어인 “더블 트랙 레이스”는 어떤 뜻일까? 스피드스케이팅은 2명이 속도를 겨루는 게임 이기에 2개의 라인에서 출발한 두 선수가 교차구역을 바꾸며 달리는 것을 말한다. 인코스에서 출발한 선수가 아웃코스, 아웃코스에서 출발한 선수가 인코스로 바꾸는 게 경기 규칙입니다. 보호 장비로 헬멧을 착용하는 쇼트트랙과는 달리 스피드스케이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착된 의상을 입는다. 0.01초 기록으로도 순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줄여 주는 의상을 주로 입는다. 스케이트의 날은 얇은 강철로 돼 있으며 이것을 지탱하는 원통의 튜브는 경금속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은 피겨나 아이스하키용 스케이트의 경우와 달리 얼음판의 표면에 닿는 부분이 직선적으로 매우 길다.



**환상적인 예술 작품,  
피겨스케이팅 경기방법**

“동계올림픽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스포츠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가 됐다. 피겨스케이팅은 음악에 맞춰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를 활주하며 다양한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을 겨루는 빙상 경기다. 경기장의 규모는 길이 56~60m, 너비 26~30m로 올림픽대회에서는 남·여 개인이 참가하는 싱글, 남녀가 한 조를 이뤄 경기를 펼치는 아이스댄스와 페어, 팀 이벤트 등 총 5개 종목이 진행된다. 싱글 경기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으로 구성된다. 점프, 스텝, 스텝 시퀀스 등 요소를 프로그램에서 실행해야 한다. 페어 경기는 남자와 여자 혼성으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으로 구성된다. 드로우 점프(남자가 여자를 점프할 수 있도록 던지는 것), 리프트(다양한 잡기와 자세로 남자가 여자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페어 스핀(두 선수가 공통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동작), 데스 스파이널(남자가 축이 되고 여자가 주위를 도는 것) 등 페어에서만 가능한 요소들을 실행한다. 아이스댄스는 남·녀 혼성으로 쇼트댄스와 프리댄스로 구성된다. 음악에 맞춰 복잡한 스텝과 기술을 실행하는데 서로 5초 이상 떨어지거나 리프트에서 남자가 여자를 들어 올려 3초 이상 머리 위로 팔을 뻗고 있으면 안 되는 등의 규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팀이벤트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해 남·여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4개 세부종목의 점수 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생생한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대회 역사**

올림픽대회에는 1948년 생모리츠대회부터 참가했으나 오랫동안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 1972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김성욱과 최중희가 금, 은메달을 따내며 처음으로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했으며 1976년 이영하가 세계주니어빙상선수권대회를 제패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7년 배기태가 세계남자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한국 빙상의 저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배기태는 199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고, 세계남녀스프린트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대회에서 김윤만이 남자 1,000m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해 올림픽대회 첫 메달을 얻었으며 2006년 토리노대회에서는 이강석이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규혁은 남자 스프린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07~2008년, 2010년 3회 종합우승을 차지, 빙상 강국임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10년 밴쿠버대회에서는 모태범과 이상화가 남녀 500m에서 동반 우승했고 이승훈이 아시아 최초로 남자 1만m에서 우승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모태범과 이승훈은 각각 1,000m와 5,000m에서 은메달을 차지, 두 개씩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상화는 2014년 소치대회에서도 여자 500m를 제패, 올림픽대회 2연패를 이뤄냈으며 이승훈은 중심으로 하는 한국 남자 팀은 팀추월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8년 평창 올림픽대회에서는 이승훈이 남자 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따내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남자 500m에서 차민규, 여자 500m 이상화, 남자 팀추월, 여자 매스타트 김보름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 남자 1,500m의 김민석과 1,500m의 김태윤이 각각 동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해성처럼 나타난 김연아 선수**

1927년 도입되었으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해방 전까지는 국내 대회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1955년 전국빙상선수권대회에서 처음 경기가 시작되었고 올림픽대회에는 1968년 그르노블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이후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올리지 못하다가 2004년 국제빙상연맹 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에서 김연아가 준우승했다. 해성같이 나타난 김연아 선수는 한국의 피겨스케이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김연아는 2005년 같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2006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도 석권했다. 이후 김연아는 일취월장해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총점 207.71을 기록,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200점을 넘겼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쇼트프로그램 78.50, 프리스케이팅 150.06점, 총점 228.56점으로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최초의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2014년 소치 대회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며 은메달을 따냈다. 김연아의 등장으로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어린 선수들도 부쩍 늘어나며 피겨스케이팅의 저변이 확대, 향후 더욱 큰 발전이 기대된다.



**스케이팅 기본자세 십계명**

- 1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확보하라.
- 2 발목을 중립 상태에 두어 휠 위에 정확히 서자.
- 3 양발은 서로 평행하게 두고, 진행 방향을 정확히 향하도록 하자.
- 4 무릎을 약 110도로 굽히고, 허벅지를 지면과 거의 평행하게 두자.
- 5 몸의 무게를 뒤꿈치 쪽으로 두도록 하자.
- 6 상체는 45~60도로 굽히고 등은 약간 둥글게 굽은 형태가 되도록 하자
- 7 양 팔은 등 아래쪽 중앙에 편하게 두자.
- 8 고개는 들고 눈은 진행방향을 주시하자.
- 9 양 어깨는(앞뒤에서 봤을 때 모두) 평행하게 두며, 정면을 향하도록 하자.
- 10 몸은 힘을 빼고 최대한 편하게 유지하자.



#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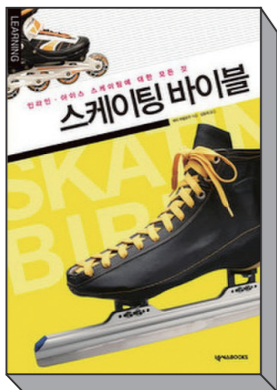
# MOVIE



###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 번의 점프 지음 | 브라이언 오서

**최고에 도전하는 김연아를 위한 오서 코치의 아름다운 동행**

최고 스케이팅 선수에서 최고 코치가 되기까지 브라이언 오서가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 번의 점프”.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아의 코치로 잘 알려진 브라이언 오서가 전설적인 스케이팅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김연아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낸 자서전이다. 타고난 선량함에 장난기 넘치는 유머감과 놀라운 스케이팅 실력을 두루 갖춘 브라이언 오서는 도널드 잭슨을 만나면서 스케이팅의 길에 들어선다. 오서는 주니어 선수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을 연기하고 8년 연속 캐나다 챔피언, 사라예보올림픽대회와 캘거리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0년대 전설적인 선수 생활을 접고, 인생의 제2막을 연 오서는 동양에서 온 작은 소녀 김연아를 만나 그녀를 피겨 여왕으로 만드는 궤를 이룬다. 오서와 김연아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그들을 “천재”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서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최고의 선수의 자리에 자신과 연아를 올려놓았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 내리는 순간, 그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브라이언 오서가 최고의 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최고의 코치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으로 달려온 하루하루를 만나보자.



### 스케이팅 바이블 지음 | 배리 푸블로우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스케이팅 가이드북!**

겨울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아이스 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팅까지, 누구나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스케이팅 따라하기” 바이블이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나 에지부터 최상의 체력과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트레이닝과 상대 선수를 견제하는 테크닉까지 설명하고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막연히 스케이팅을 두려워했던 초보자도 이 책 한 권으로 스케이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인라인과 아이스 스케이팅의 차이점과 훈련방법, 경기운영법 등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인라인 스케이팅 전문서로서 일선 지도자들에게 좋은 자료이자 교재가 될 것이다. 특히 체력 훈련법과 기술에 관한 내용을 한 권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더욱 실용적이다. 또한 중상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고급 테크닉을 많이 담았고 효율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고 구현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스케이팅을 배우거나 더 적극적으로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저자 배리 푸블로우는 국가대표팀 선수 시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으며 대표팀 코치를 맡아 처음 참가한 세계대회에서도 팀을 우승으로 이끈,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라인 선수이자 지도자이다.

### 아이, 토냐 감독 | 크레이그 길레스피 출연 | 마고 로비, 세바스찬 스텐, 맥케나 그레이스, 엘리스 제니

**세상이 열광하고 버렸던 은반 위의 여녀**

미국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 토냐 하딩. 괴물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독기 품고 스케이팅을 타는 그녀 앞에 낸시 캐리건이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고, 동계 올림픽대회 참가권을 따기 위한 선수권 대회에서 “낸시 캐리건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온갖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 토냐 하딩은 과연 다시 은반 위에 설 수 있을까? 피겨스케이팅 선수 토냐 하딩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발칙하게 재현해낸 영화 <아이, 토냐>는 단연 토냐 하딩을 완벽하게 묘사해낸 “마고 로비”와 악독한 엄마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한 “엘리스 제니”의 열연이 돋보였다. 특히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유일하게 건진 매력적인 캐릭터 “할리퀸”으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줬던 “마고 로비”는 이번에도 인생 캐릭터를 갱신하며 토냐 하딩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 아이스 프린세스(Ice Princess) 감독 | 팀 파이델 출연 | 마일 트라첸버그, 조앤 쿠삭, 킴 캐트럴

**수학, 물리학으로 돌파한 피겨 스케이팅**

하버드대학교를 꿈꾸는 과학영재 케이시. 과학 선생님은 물리학이 그녀의 천직이라고 믿으며 과학 장학금 후보로까지 추천해 준다. 조건은 자신의 진가를 입증할 만한 과학 리포트 한 편을 제출하는 것. 개인적인 주제를 잡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케이시는 아이스 스케이팅 리포트 주제로 정한다. 평소 피겨 스케이팅 광이었던 케이시는 회전과 점프 등 피겨 스케이팅의 동작을 물리학의 원리로 풀어내려고 한다. 지역 유망주들이 훈련받는 스케이팅장을 찾아가 비디오 촬영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던 케이시는 영상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수강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처음에는 꼬마들과 함께 레슨을 받았지만, 타고난 재능과 열심 덕에 케이시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참가 자격까지 획득하게 되는데...



### 아이스 감독 | 올렉 트로핑 출연 | 아글리아 타라소바, 밀로스 비코비치, 알렉산더 페트로프

**피겨 강국에서 찾아온 오감자극 짜릿한 스케이팅 무비!**

2018 러시아 박스오피스 최대 화제작이었다. 오프닝스코어 신기록 갱신한데다 러시아 최고 영화제 골든글 10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돼 2020년 속편 제작 확정된 영화 아이스. 구부정한 몸, 휘어진 다리, 피겨요정을 꿈꾸던 어린 나디아, 호랑이 코치 사탈리나에게 극강의 훈련을 받아 피겨스케이팅 간판 선수 레오노프의 파트너가 돼 정상에 오른다. 그러나 최고 권위의 피겨스케이팅 대회인 아이스컵 진출을 앞두고 심각한 부상으로 활쳐어 신세를 지게 된다. 다시는 빙판 위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든 좌절감에 빠진 나디아에게 사탈리나 코치는 재활 파트너로 스타워즈밖에 모르는 딸기 총만 아이스하키선수 사샤를 옆에 붙여주게 되는데... 아슬아슬 빙판 위 달콤살벌한 피겨스케이팅 커플이 탄생할까? 모두의 응원 속에 환상적인 아이스쇼가 펼쳐진다!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이

# 렛츠런파크

우리가족은 **렛츠런파크**로 렛츠고~!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짜릿한 승부  
경주 관람



어린이를 위한  
승마 체험장



자연체험 학습장  
빅토빌리지

**LetsRun PARK** 부산경남

부산 · 경남 최고의 말 테마 가족공원 렛츠런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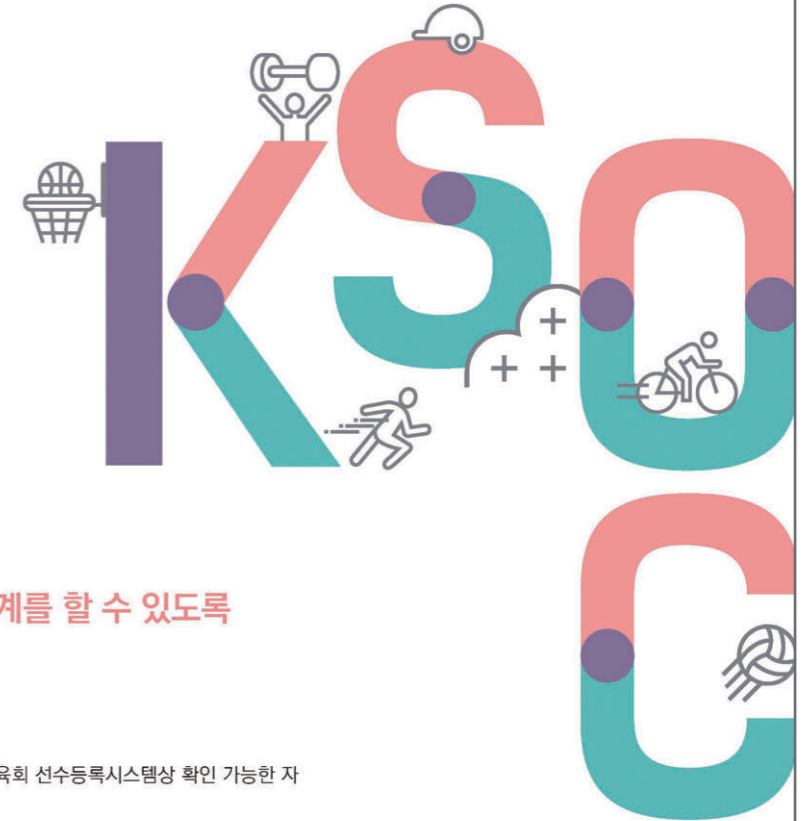
www.kra.co.kr | 대표전화 1566-3333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매년 2,000여억 원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 · 한 · 체 · 육 · 회

# 운동선수 진로지원 프로그램



대한체육회에서는 운동(은퇴)선수가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20세 이상 운동/은퇴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자

**접수방법**

전화 | 02-419-1114

온라인 | 체육인복지포털, welfare.sports.or.kr

KakaoTalk 플러스친구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운동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진로컨설팅**
  - 초기상담을 통해 적성, 흥미, 역량 등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 면접 및 이력서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구직전략 수립
- **멘토링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멘토로 활동하며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진로 목표 설정 지원
  - 멘토-멘티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멘티의 구직 자신감 향상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스포츠 진로교육**
  -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개인별 역량강화
- **취업스킬 UP 교육**
  - 인사서류 작성법, 면접 준비, 채용정보 탐색 등 구직스킬 향상
  - 이론 및 실습을 통한 개인별 맞춤 지원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 지원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
- 지원내용** 선수출신의 진로교육 전문강사가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준비과정 교육

**국가대표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취업전문성 강화
  - 진로상담
  - 심리상담

**잡(Job)매칭 서비스**

- 신청방법** 체육인복지포털 - 은퇴선수 잡매칭(온라인)
- 지원내용** 스포츠 전문 직종에 대한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